

석사학위논문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 인상과  
관상학의 상관관계

2018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조채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주연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 인상과  
관상학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of Physiognomy and the Diverse  
Shapes of the Eyebrow With Makeup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조채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황주연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 인상과  
관상학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of Physiognomy and the Diverse  
Shapes of the Eyebrow With Makeup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조채연

조채연의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 인상과 관상학의 상관관계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분   장   예   술   전   공  
조                    채                    연

심리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외적으로 표현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서 메이크업이 발전해왔다. 메이크업의 요소 중 인상표현에 기준점을 제공하는 눈썹은 그 형태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상에 변화를 주어 평소와 다른 다양한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 눈썹의 형태만으로도 사람의 성격 및 인상을 결정 지으며, 타인에게 선명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공로자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얼굴부위 중 눈썹의 형태로 인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눈썹 메이크업에서의 눈썹형태별 인상은 관상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먼저 메이크업 및 관상학을 관련한 국내문헌 및 학위 논문 등을 기초로 하여 각 눈썹형태별 인상을 알아보았다. 각 문헌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에 대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총 18가지 형용사를 발취 후 10대에서 60대까지의 메이크업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눈썹형태별 인상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응답과 관상학적 인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호감적인 인상표현이 가능하도록 돕는 눈썹형태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표준형 눈썹은 긍정적인 인상만이 존재하며, 이외 모든 눈썹의 형태에서 나타내는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이 일맥상통하였다. 표준형 눈썹은 깨끗해 보이며, 일자형 눈썹은 단정하지만 고집스러운, 아치형 눈썹은 상냥하고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은 날카롭거나 사나운, 처진형 눈썹은 우울하거나 외로운 인상이다.

둘 째, 설문을 통한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인상에 대한 응답으로는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인상과 같이 표준형 눈썹은 부정적 인상이 없는 맑고 총명해 보이는 긍정적 인상, 일자형 눈썹은 자애롭고 인자함과 동시에 단정한 인상, 아치형 눈썹은 상냥하고 화목해 보이는 인상,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에서는 교활하거나 날카롭다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처진형 눈썹에서는 외롭고 궁핍한 인상으로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셋 째, 조사대상자의 응답과 관상학적 상관관계에 있어서 눈썹형태별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 모두 상반되지 않고, 일치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넷 째,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로는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으로 조사되었으며, 비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눈썹의 형태는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이다.

따라서 눈썹형태별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은 관상학적 인상과 일치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정적인 인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과 같은 눈썹의 형태는 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나타내는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의 눈썹의 형태를 각추는 것이 호감적인 인상 표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 1 절 메이크업의 이해 .....	4
1) 메이크업의 정의 및 기원 .....	4
2) 얼굴형 및 눈썹의 세부형태 .....	6
제 2 절 관상학의 이해 .....	13
1) 관상학의 정의 및 기원 .....	13
2) 삼정 및 눈썹의 세부형태 .....	16
제 3 장 연구방법 .....	21
제 1 절 연구내용 및 모형 .....	21
제 2 절 조사대상 및 기간 .....	22
제 3 절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	23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	24
제 1 절 선행연구 .....	24
1) 메이크업에 관련한 연구 동향 .....	24
2) 관상학에 관련한 연구 동향 .....	34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3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통계결과 .....	4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5
2)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에 관련한 특성 .....	48

3) 조사대상자의 관상학에 관련한 특성 .....	58
4)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	7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76
참 고 문 헌 .....	78
부       록 .....	81
ABSTRACT .....	90

## 표 목 차

〈표 1〉 얼굴형에 따른 윤곽수정 메이크업의 형태 .....	9
〈표 2〉 각 눈썹형태별 어울리는 얼굴형 .....	12
〈표 3〉 조사대상자의 응답 비율 .....	22
〈표 4〉 각 문헌에 따른 얼굴형 명칭의 종류와 분류 수 .....	24
〈표 5〉 7가지 얼굴 유형의 형태와 특성 .....	25
〈표 6〉 각 문헌에 따른 눈썹형태별 명칭의 종류와 분류 수 .....	26
〈표 7〉 선행연구자들에 따른 눈썹형태별 어울리는 얼굴형 .....	27
〈표 8〉 선행연구에 따른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	28
〈표 9〉 메이크업에서 표준형에 속하는 눈썹 .....	29
〈표 10〉 메이크업에서 일자형에 속하는 눈썹 .....	29
〈표 11〉 메이크업에서 아치형에 속하는 눈썹 .....	30
〈표 12〉 메이크업에서 각진형에 속하는 눈썹 .....	30
〈표 13〉 메이크업에서 상승형에 속하는 눈썹 .....	31
〈표 14〉 메이크업에서 처진형에 속하는 눈썹 .....	31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이미지 변화 부위의 차이 .....	33
〈표 16〉 기본 눈썹형태에 해당하는 관상학적 눈썹형태 분류 .....	34
〈표 17〉 관상학 관련문헌에 따른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	36
〈표 18〉 중복적인 인상 의미에 대한 형용사 분류 .....	37
〈표 19〉 관상학에서 표준형에 속하는 눈썹 .....	39
〈표 20〉 관상학에서 일자형에 속하는 눈썹 .....	39
〈표 21〉 관상학에서 아치형에 속하는 눈썹 .....	40
〈표 22〉 관상학에서 각진형에 속하는 눈썹 .....	40
〈표 23〉 관상학에서 상승형에 속하는 눈썹 .....	41
〈표 24〉 관상학에서 처진형에 속하는 눈썹 .....	41
〈표 25〉 관상학 특성에서 발취한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	42
〈표 26〉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43
〈표 27〉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 실무 경력기간 .....	45

〈표 28〉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형태 .....	46
〈표 29〉 메이크업을 시술하는 빈도 .....	47
〈표 30〉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	48
〈표 31〉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 .....	49
〈표 32〉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 .....	50
〈표 32-1〉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 평균 비교 .....	51
〈표 33〉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	52
〈표 33-1〉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평균 비교 .....	53
〈표 34〉 호감적인 눈썹형태의 존재 여부 .....	54
〈표 34-1〉 호감적인 표현이 가능한 눈썹형태 존재의 인식도 평균 비교 ..	55
〈표 35〉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형태 .....	56
〈표 36〉 메이크업 시 눈썹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 .....	57
〈표 37〉 관상학에서 인상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 .....	58
〈표 38〉 관상학적 눈썹형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평가 .....	59
〈표 39〉 관상학적 긍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	60
〈표 40〉 관상학적 부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	61
〈표 41〉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	62
〈표 42〉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 .....	63
〈표 43〉 관상학적 관점에서의 인식 수준 평균 비교 .....	64
〈표 44〉 조사대상자의 얼굴 형태별 눈썹 선호도 .....	66
〈표 45〉 눈썹형태별 긍정적 인상의 형용사 평가 .....	69
〈표 46〉 눈썹형태별 부정적 인상의 형용사 평가 .....	70
〈표 47〉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대표 인상 비교 .....	72
〈표 48〉 관상학과 조사대상자의 인상 비교 .....	74

## 그림 목 차

〈그림 1〉 이상적인 얼굴 균형도 .....	7
〈그림 2〉 이상적인 눈썹 균형도 .....	10
〈그림 3〉 삼정, 삼재 세분도 .....	18
〈그림 4〉 눈썹 세분도 .....	20
〈그림 5〉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 실무 경력기간 그래프 .....	45
〈그림 6〉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형태 그래프 .....	46
〈그림 7〉 메이크업을 시술하는 빈도 그래프 .....	47
〈그림 8〉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프 .....	48
〈그림 9〉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 그래프 .....	49
〈그림 10〉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정도 그래프 .....	50
〈그림 11〉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그래프 .....	52
〈그림 12〉 호감적인 눈썹형태의 존재 여부 그래프 .....	54
〈그림 13〉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형태 그래프	56
〈그림 14〉 메이크업 시 눈썹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 그래프 .....	57
〈그림 15〉 관상학에서 인상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 그래프·	58
〈그림 16〉 관상학적 눈썹형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래프 .....	59
〈그림 17〉 관상학적 긍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그래프 .....	60
〈그림 18〉 관상학적 부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그래프 .....	61
〈그림 19〉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그래프 .....	62
〈그림 20〉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 그래프 .....	6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외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 시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존재감을 표출하여 이에 만족을 얻으며, 이는 곧 사회적 구성원에서 우월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의복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메이크업이 다른 이성에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이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나,<sup>1)</sup> 현대에는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성격, 능력까지 변화되는 효과를 얻게 됨으로서 메이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외모로부터 받는 인상은 인물평정의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sup>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대할 때 은연중에 외모를 근거로 타인을 호의적으로 혹은 비호 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포함하여 ‘인상’을 먼저 느끼게 되듯 얼굴은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비중이 상당하다. 그 중 관상학에서 중정부위에 해당하는 눈썹의 형태는 인상을 결정짓는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눈썹 메이크업은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을 보여주는 메이크업으로<sup>3)</sup>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듯 인상을 통하여 외모는 물론 성격, 인격, 생활태도, 심신의 발달상태, 건강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굴의 인상은 중요하다. 눈썹의 형태가 인상 형성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미루어 볼 때, 학문적 접근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눈

1) 김은희 외 2. (2012). 『베이직 메이크업』. 서울: 교문사, p.4.

2) 장재복. (2000). 『한국 기업의 면접시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3) 김진경. (2015). 『눈썹 메이크업 평균변화율에 따른 얼굴 이미지 감성평가』.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썩의 모양과 방향을 주제로 효과적인 이미지 변화를 위한 연구는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눈썹형태에 나타난 인상과 관상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에 나타난 인상이 관상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학술적 의도를 두어 연구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문제

메이크업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미적본능에서 비롯되었으나, 현 시대에서는 정작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이 아닌 사회적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실정이다.

김진경(2015)의 연구에서 눈썹 메이크업의 평균변화율에 따라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얼굴의 이미지를 평가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에 나타난 인상이 관상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하며, 더불어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눈썹의 형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인상변화를 결정짓는 중정부위의 눈썹 세부형태를 분석하여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그에 따른 눈썹에 대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조사대상자 응답에 대한 수치의 객관적인 평균값을 위해 빈도 분석 및 SPSS 23.0 t-test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눈썹형태별 인상은 어떠한가?

둘 째,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인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 째, 조사대상자의 응답과 관상학적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 째,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는 무엇인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메이크업의 이해

#### 1) 메이크업의 정의 및 기원

16세기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희곡작품 속에서 페인팅(Painting)이란 단어로 사용된 이후 17세기의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shou)라는 영국 시인이 화장을 뜻하는 말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시초로 하여 현대까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이나 단점을 수정 및 위장하는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크업을 화장(化粧), 서양에서는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페인팅(Painting), 마귀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된다.<sup>4)</sup> ‘화장’이라는 의미는 화장품을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sup>5)</sup> 이는 얼굴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색채를 가미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어 내는 것을 말한다.

미적 본능의 욕구표현은 국가나 민족,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로부터 인간에게는 자신의 몸을 가꾸고 외부에 돋보이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sup>6)</sup>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그 시기를 같이 하는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보호설, 신분표시설, 종교설, 장식설, 이성유인설 등이 대표적이다. 원시 초기에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거나 분노 및 슬픔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을 원시적인 치장으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7)</sup>

보호설로는 동물의 가죽을 입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동물의 피

4) 허정록 외4. (2017). 『TOTAL MALE UP』. 경기: 형설출판사, p.12.

5) 김리원. (2015). 『눈썹 메이크업 평균변화율에 따른 얼굴 이미지 감성평가』. 중부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46.

6) 양진희 외6. (2013). 『메이크업 디자인』. 경기: 광문각, p.13.

7) 임미애 외2. (2009). 『화장문화사』. 서울: 신정, p.11.

를 발라 태양 혹은 건조함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보호설의 대표적 예로, 이집트인들이 사막의 모래바람, 곤충,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 밑에 발랐던 검은 코올(Kohl)을 들 수 있다. 신분표시설은 자신의 권위, 종족, 성별, 연령, 결혼의 유무 등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표시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인도에서는 여성의 결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기혼자 얼굴 미간에 붉은 점을 그려 표시하였다. 종교설로는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술과 같은 종교적 의식행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밖에 향을 이용하여 재앙과 병을 물리치고, 적으로부터 자신 및 부족의 안녕과 복을 비는 행위로 사용되었다. 장식설과 이성유인설은 꽃이나 동물문양과 같은 회화, 문신 등을 피부에 새겨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며,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대는 루키즘(Lookism)의 시대<sup>8)</sup>라 불릴 만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외적 아름다움과 매력 및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의 수단이다. 과거와 달리 메이크업의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얼굴 중심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눈에 반응하게 되는 메이크업은 색채뿐만 아니라 형태도 포함되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미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과 도구들이 사용되며, 전문적인 메이크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표현 영역에 따라 뷰티, 캐릭터, 무대, 아트, 특수 분장메이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은 메이크업 적용 범위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메이크업이 단순히 외적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문적인 메이크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모두 결과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메이크업은 내적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메이크업이 행해진다.<sup>9)</sup>

8) 김혜리. (2009). 『취업지원자의 외적 이미지가 면접관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 2) 얼굴형 및 눈썹의 세부형태

### 가) 얼굴형

얼굴의 생김새에서 뚜렷한 형태로 인상을 평가 할 수 있는 부위는 ‘이목구비’라 불리는 눈, 코, 입이 해당하며, 부수적 부분으로 이마, 양쪽 볼 그리고 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 부분들 간의 이상적인 비율이 존재하며, <그림 1>과 같이 메이크업에서 이상적인 얼굴의 균형도(Face Proportion)라 한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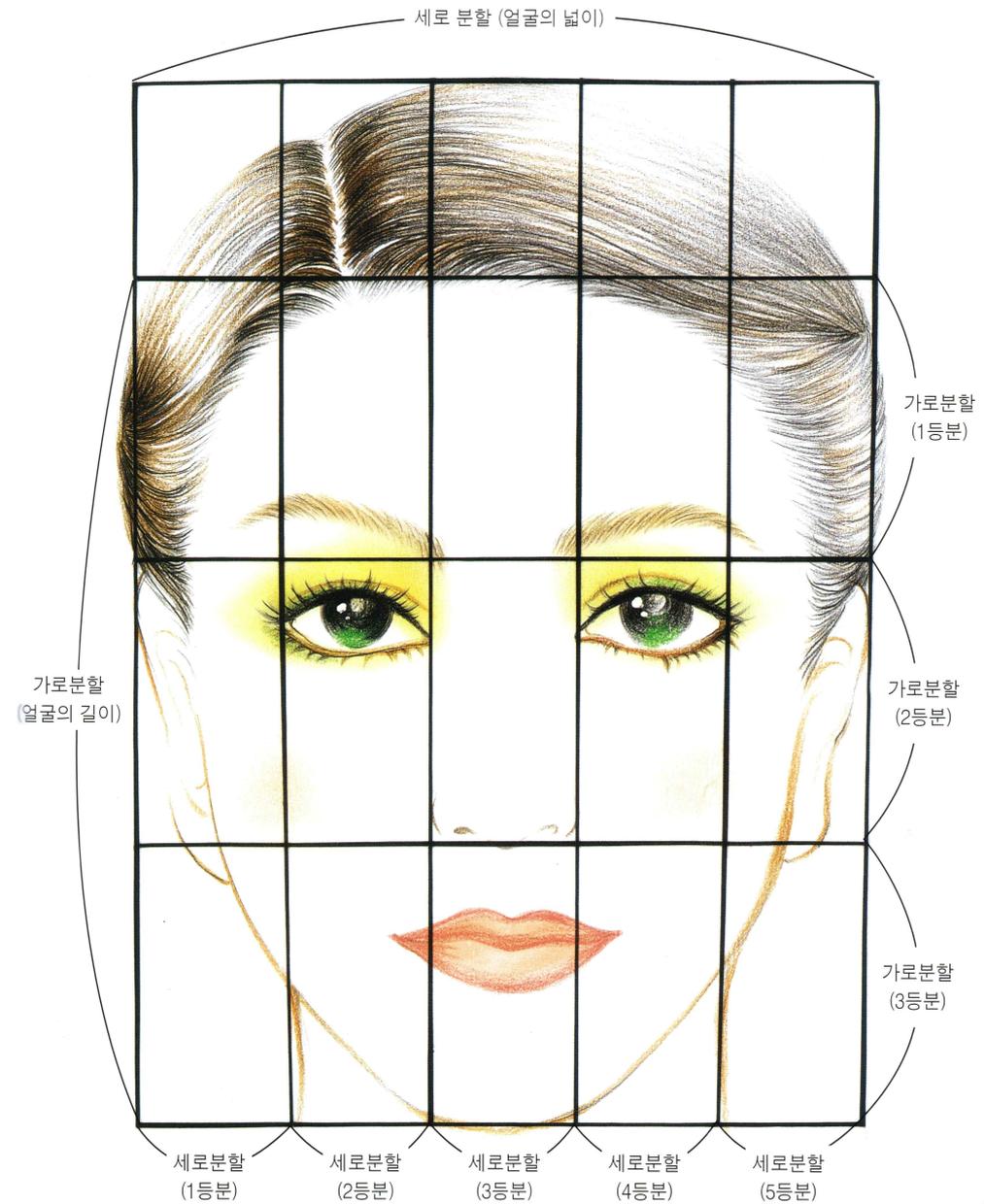
얼굴의 균형은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가로 3등분과 세로 5등분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 비율에 따라 이마 상단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이에 따라 넓은 얼굴, 좁은 얼굴, 긴 얼굴, 짧은 얼굴로 나누어진다.<sup>11)</sup> 얼굴의 형태에 따른 느낌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얼굴의 지방과 골격 정도에 따라 곡선형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뚜렷한 각을 이루거나 직선적으로 뾰족하게 이루어진 얼굴은 날카로운 인상 혹은 남성적 느낌을 준다. 이는 얼굴의 형태가 분위기를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9) 이강미 외4. (2014). 『메이크업 베이직』. 서울: 구민사, p11.

10) 양진희 외6. (2013). 앞의 책, p.56.

11) 권경애. (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그림 1〉 이상적인 얼굴 균형도<sup>12)</sup>

12) 양진희 외6. (2013). 앞의 책, p.57.

윤곽수정 메이크업은 각 얼굴형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여 균형 있는 얼굴을 표현함으로써 전반적인 인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적인 얼굴의 균형은 조화와 균형에 대한 미적 관심을 인간의 얼굴에도 적용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완성된 이론으로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sup>13)</sup>

미인의 기준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 당나라 때의 미인들은 모두 복스럽게 살이 있는 얼굴이었던 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미인들은 신윤복의 「미인도(美人圖)」나 그 밖의 미인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이 가늘고 선이 고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4)</sup>

현대의 경우 동양인은 얼굴이 작고 가름한 얼굴이 미인형이라 하는 반면 서양인의 경우 각이 지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형을 미인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미적 판단 기준은 얼굴의 크기에 따른 것이 아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조화로운 균형에 근거한 것으로서 얼굴의 가로 폭과 세로 길이의 비율이 1:1.5에 가까울수록 미인형으로 본다. 동 서양의 미의 기준 및 얼굴 비율의 기준은 차이가 있다. 현대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좋다고 말하는 얼굴의 비율은 좌우의 길이와 위아래의 길이가 1:1.3인 경우로 계란형에 속하는 얼굴이다. 한편 서양의 경우 1:1.5 정도를 이상적인 얼굴의 비율로 본다.<sup>15)</sup>

<표 1>과 같이 얼굴 균형형태에 기반 하여 얼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얼굴형을 결정하는 기준을 곡선과 직선으로 나누고 곡선적인 형태를 둥근형, 직선적인 형태를 사각형 및 삼각형 등으로 나누어 얼굴형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윤곽수정 메이크업의 형태에 대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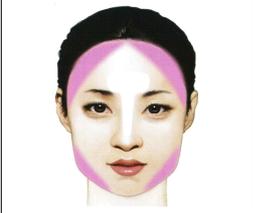
---

13) 이강미 외4. (2014). 앞의 책, p.128.

14) 오세희. (2005). 『오세희의 스타일 메이크업』. 경기: 성안당, p.83.

15) 오세희. (2005). 위의 책, p.83.

〈표 1〉 얼굴형에 따른 윤곽수정 메이크업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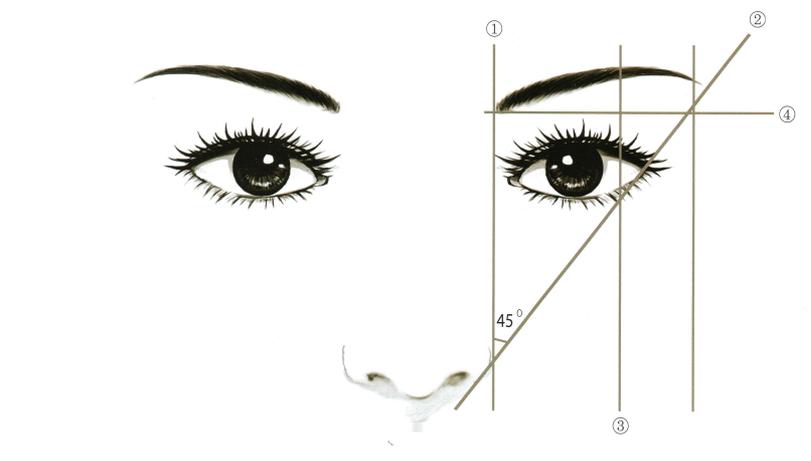
얼굴형	얼굴형 이미지	윤곽수정 메이크업의 형태	윤곽수정
계란형			하이라이트 : 이마의 중앙부분, 콧등 전체 새딩 : 이마의 상단부분
긴형			하이라이트 : 눈 밑 양쪽 볼 새딩 : 이마 끝 과 턱 끝
둥근형			하이라이트 : 이마의 중앙부분, 콧등 전체 새딩 : 이마에서 턱까지의 세로로 양쪽 볼
각진형			하이라이트 : 이마의 중앙부분 새딩 : 이마의 양쪽 끝, 튀어나온 양쪽 턱
역삼각형			하이라이트 : 광대뼈 밑에 위치한 양쪽 볼 새딩 : 이마의 양쪽 끝, 턱 끝
마름모형			하이라이트 : 이마의 양쪽 끝. 살이 없는 턱 쪽의 볼 새딩 : 광대뼈, 턱 끝

## 나) 눈썹

눈썹은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 밖에 없는 것으로 매우 인간적인 부위이며 표정을 살리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감정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sup>16)</sup> 눈썹은 인상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볼 수 있으며, 문헌으로 기록되기 전부터 눈썹은 얼굴을 장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sup>17)</sup>

메이크업을 통한 눈썹형태의 변형만으로도 얼굴의 전반적인 이미지 및 인상을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부위로서 여성이 화장을 할 때 그 형태, 길이, 두께 등으로 쉽게 얼굴의 인상을 가장 자유로이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얼굴형이나 눈매를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sup>18)</sup>

<그림 2>는 눈썹 메이크업에서도 얼굴의 균형도와 같이 눈썹의 총 길이를 가로로 3등분 하여 눈썹을 그리는 기본적인 형태와 위치의 이상적인 균형도가 존재하며, 눈썹의 산이 너무 각지거나 완만하지 않은 가장 무난한 형태로 모든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눈썹을 표현하는 대표적 예이다.



<그림 2> 이상적인 눈썹 균형도<sup>19)</sup>

16) 황은임. (2013). 『첫인상 호감도 상승을 위한 얼굴 수정메이크업 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17) Robyn Cosio, Cynthia Robins. (2005). 『눈썹의 역사』. 서울: 동서교류, p.1.

18) 황은임. (2013). 위의 논문, p.26.

19) 김활란 외5. (2015). 『메이크업개론』. 경기: 한국의 맥, p.150.

이상적인 눈썹의 균형도에 맞추어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콧방울의 끝에서 미간부위까지 수직으로 올라가 만나는 지점을 눈썹의 앞머리의 위치로 한다.

둘 째, 콧방울의 끝에서 눈 꼬리를 지나는 수직선상 지점을 눈썹의 길이로 한다.

셋 째, 눈썹의 머리와 눈썹꼬리의 길이를 가로로 3등분 하여  $\frac{2}{3}$ 지점을 눈썹 산으로 한다. 이 때 눈썹에서 가장 높이 위치하는 부분의 색깔도 가장 진하게 한다.

넷 째, 전체적인 눈썹의 각도는 눈썹의 앞머리를 가로로 일직선으로 하였을 때 보다 쳐지지 않아야 한다.

눈썹 균형도를 바탕으로 하여 5가지 혹은 6가지의 기본적인 눈썹의 형태가 존재한다. <표 2>는 이러한 기본적인 눈썹의 형태를 다루며, 각 눈썹의 형태별 이미지와 어울리는 얼굴형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각 눈썹형태별 어울리는 얼굴형

눈썹의 기본 형태	눈썹 이미지	어울리는 얼굴형
표준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며, 모든 얼굴형에 무난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눈썹이다.
일자형		긴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서 표준형에 비해 눈썹 산의 높이가 낮다.
아치형		마름모형, 역삼각형의 얼굴형이나 이마가 넓은 얼굴에 잘 어울린다.
각진형		등근 얼굴형이나 전체적으로 얼굴의 길이가 짧은 얼굴형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다.
상승형		등근 얼굴형이나 각진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화살형 눈썹이라고도 하며, 큰 개성이 없는 얼굴에도 효과적인 형태이다.
처진형		눈썹 산에서부터 눈썹의 꼬리가 눈썹의 앞머리보다 아래로 내려가 처지는 형태로 긍정적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 제 2 절 관상학의 이해

### 1) 관상학의 정의 및 기원

관상학은 볼 관(觀), 서로 상(相)의 의미를 사용하여 말 그대로 ‘상을 보는 것’<sup>20)</sup>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의 감추어진 운명이나 성질을 보고, 모든 사물의 생김새를 통하여 사물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얼굴의 외적인 생김새뿐만 아니라 언변과 체격, 걸음걸이까지 종합적인 관찰을 통하여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파악한다.<sup>21)</sup>

인상은 색으로 관찰하는 찰색이라 하고, 마음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심상, 음성으로 관찰하는 언상이 있으며, 골상으로 보는 것이 관상이다. 관상에서 상을 형상 상(狀)이 아닌 서로 상(相)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 역시 나를 보고 판단 한다는 것으로서 ‘서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상학은 4800년 전, 중국 고대의 제왕(帝王) 복희씨(伏羲氏)가 팔괘(八卦)를 처음으로 발명하여 미래를 점칠 수 있게 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후, 중국 서주시대와 춘추시대 때 우리나라에 재출연한 낙서(落書)로 인해 점술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고, 은나라와 하나라를 거쳐 주나라 문왕(文王) 시대에 ‘주역(周易)’이라 고쳐졌다.<sup>22)</sup>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술 방법이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당시 점술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현재로부터 약 3,000년 전, 출생한 숙복(叔服)은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동주(東周)시대의 상술가, 중국 관상법의 창설자이다. 그는 성체가 북두에 침입한 노나라 문공 14년 7월에 송·제·진 세 나라의 왕이 칠 년 내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예언하였다.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고 이것이 점성술의 효시가 되었다. 이 후 천문학과 점성술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로, 진나라의 고포자경(姑

20) 전인호. (2009). 『내 인생의 돈을 부르는 부자되는 관상비결』. 서울: 케이앤퍼북스, p.14.

21) 박중환. (2016). 『관상학 사전』. 서울: 대유학당, p.5.

22) 김현남. (2009). 『관상:복을 부르는 관상, 화를 부르는 관상』. 서울: 나들목, p.25.

布子卿)이 있다. 그는 상학을 계승하였으며, 골상을 통해 관상을 보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sup>23)</sup> 그는 공자의 머리 가운데가 오목하여 ‘구멍(孔)’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공자의 본명을 지었으며, 장래에 성인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다음으로 초나라의 당거(唐擧)가 유명하다. 숙복과 고평자경은 골상(骨相)을 연구 했으나 당거는 찰색(察色)과 기색(氣色)을 보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상학이 거의 완성된 후에 당거의 찰색과 기색을 보는 관상학의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관상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후로 관상학을 신봉하였던 한나라의 고조 유방(劉邦)이 관상 학자를 등용시켰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관상학자 허부(許負)이다. 그는 현존하는 상서(相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서 16편을 남겼으며, 이 상서 중에는 이목구비의 형태를 기록한 인륜식감(人倫識鑑)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상법 이론들이 나와 있다. 송나라 때 마의선사의 제자 진단(陳搏)이 최초로 지금까지 비전되던 것을 일반의 공익을 위하여 발표하였으므로 그를 상학의 증시조로 부른다.<sup>24)</sup> 옛날부터 전해 오는 복술과 형태가 다른 관상학은 통계 과학으로서 형이하학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관상학이 들어온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다. 신라시대 선덕여왕(善德女王)때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 온 승려들이 상법을 배워온 것에 의해 전해졌다. 승려들에 의해 전달된 관상학의 계통은 달마대사의 상법이다. 이 후 신라 말 경, 풍수학의 시조로 불리는 도선 국사가 당나라의 학설을 배워와 고려시대에 상서가 도입 되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 시기인 고려 말, 유명한 관상가 혜증(惠潛)은 그의 상을 보고 놀라며 후에 임금이 될 것임을 예언하였다. 조선 초, 세조 시절에 도승 영통사(靈通寺)는 한명회(韓明澮)의 관상을 보고 후에 재상이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는 《한씨보응록(韓氏報應錄)》에도 기록되어있다. 그밖에 예언이 적중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많았다는 고관대작의 집에는 관상가들의 출입이 잦았다고 《대동기문(大東奇聞)》에도 기록되

---

23) 박중환. (2016). 앞의 책, p.6.

24) 전인호. (2009). 앞의 책, p.41.

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상학은 많이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족 특성상 자신이 아는 특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한 이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정북창(鄭北昌) · 정인홍(鄭仁弘) · 이토정(李土亭) · 이천연(李千年)과 일제시대의 최운학(崔雲鶴) · 배상철(裴相哲) · 강남월(姜南月)이 유명하였으나, 이들 모두 생업으로 관상업을 행했기에 진실한 포부를 다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 시대에도 관상가들의 수가 적지 않고 관상학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 2) 삼정 및 눈썹의 세부형태

### 가) 삼정

얼굴의 관상을 볼 때 관상학에서는 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sup>25)</sup> 삼정은 얼굴 전체에서 이마와 뺨, 턱을 100%의 비율로 보고 머리카락의 시작점에서부터 상부·중부·하부별 가로로 삼등분 하여 상정·중정·하정을 나누는 것이다. 삼정 중 어느 부분의 면적이 넓은지 살피고 얼굴의 조화, 얼굴의 특징을 찾는 것이 관상의 기초이다. 상부는 상정(上停) 또는 천정(天停)이라 하며, 중부는 중정(中停) 또는 인정(人停)이라 하고, 하부는 하정(下停) 또는 지정(地停)이라 한다.

상정은 지(智), 중정은 의(意), 하정은 정(情)을 뜻한다. 사람의 얼굴을 3단계의 시간적 개념으로 나누어서 일생의 궁통(窮通), 배우자와 득실, 자식, 복록과 길흉화복, 재산, 재앙, 질병, 장수와 요절 등의 상리(相理)와 호불호(好不好)를 평가하는 것이다.<sup>26)</sup> 상정의 위치로는 머리카락의 시작점에서 눈썹 시작점 까지를 나타내며 하늘의 뜰, 하늘의 창고라 하여 가장 먼저 태양의 빛을 받는 부위이다. 천인지 중에서 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는 초년(30세 이전)을 살필 수 있다. 세세하게는 초년부터 말년까지 살필 수 있다고 하여 미래가 표시되는 부위라고 하며, 손윗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건강적인 관점에서는 심장, 폐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다. 또한 선천적인 지능이 우수한지, 뇌가 건강한지의 여부와 지혜를 판단 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턱을 판단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상정이 발달한 사람은 사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특성이 있다. 수학적 사고가 발달하여 일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총명하여 성적이 좋은 편이며 관운도 좋다. 살집이 두툼하여 풍부해 보이는 상정은 부모의 덕과 손윗사람과의 교제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 도움을 받거나 성공한다. 살집이 빈약하여 얇아 보이는 상정은 손윗사람의 도

25) 김연희. (2015). 『관상학을 기초로 한 관상메이크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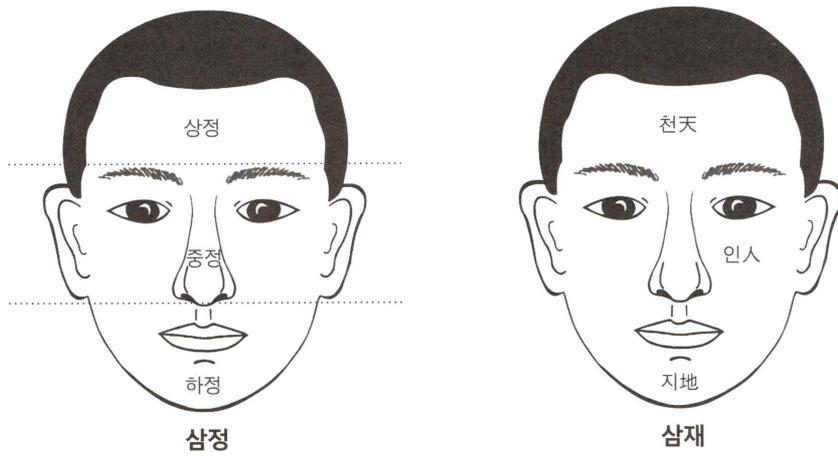
26) 박중환. (2016). 앞의 책, p.17.

움도 적고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

중정은 천지인의 인에 해당하며, 눈썹 시작점에서 코 끝 까지를 나타낸다. 나이로는 중년(50세 이전)을 뜻한다. 사회적응력과 자립능력, 추진력, 사업 구상능력, 금전에 대한 소유욕 및 전반적인 사회생활을 나타낸다. 본인의 권위를 의미하면서 결단력이나 실행력, 의지의 강약 등 자신의 현재 의사를 표시함과 더불어 신체를 나타낸다. 건강상으로는 눈과 코, 간장이나 췌장의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중정의 발달이 좋은 사람은 업무나 일을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살집이 두툼하여 풍부해 보이는 중정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고, 친구의 덕이 많다. 살집이 두툼하나 빼가 보이는 중정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중년에 고생이 많다.

하정은 천인지 중에서 지에 해당하며, 인중에서 턱 끝 까지를 나타낸다. 노년(75세 이전)과 수명을 나타낸다. 땅과 집, 가정생활을 암시한다. 하정을 통해 결단력이나 실행력 및 의지의 강약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처세관과 품위, 생활수준 등 말년의 재력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을 소중히 하는 사람인지 등의 인덕과 손아랫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건강으로는 신장이나 성기, 자궁 등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다. 하정의 발달이 좋은 사람은 일을 정(情)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살집이 매우 풍부해 보이는 하정은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손아랫사람과 인연이 좋아 덕이 많고 자녀의 덕도 많다. 살집이 풍부하나 부푼 것처럼 느슨한 피부의 하정은 자신의 집을 갖는 시기가 늦으며,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약하고, 노년에 고생이 많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을 중심으로 삼정의 삼등분이 균형을 이루어 잘 발달해 있으면 좋은 형태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부위가 부족하면 나이가 해당하는 시기에 건강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림 3〉 삼정, 삼재 세분도<sup>27)</sup>

---

27) 박중환. (2016). 앞의 책, p.19.

## 나) 눈썹

눈썹은 미용측면의 기능 외에도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붕의 처마 처럼 우리 얼굴의 지붕의 역할을 한다. 위에서 떨어지는 이물질이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막아주며, 비바람을 막아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sup>28)</sup>

관상학적으로 눈썹은 하늘을 상징하는 이마에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하여 변화하기 쉬운 까닭에 보수관(保壽官)이라고도 한다.<sup>29)</sup> 정신이 머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눈의 건강과 수명을 보호하며, 나쁜 운은 감소시키고, 좋은 운은 더욱 좋게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얼굴과 눈의 아름다움 및 추함의 요소를 결정하는 부위이며, 눈을 돋보이게 장식 하는 동시에 외모의 상징이 되기도 하여 눈썹과 눈이 잘 어울려야 운이 좋다.<sup>30)</sup>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또렷하게 하며, 눈썹의 형태는 마치 선두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균형을 이루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모습과 닮은 것이 좋은 형태의 눈썹이다. 조화를 우선시 하며, 눈썹은 넓고 가늘고 길수록 좋고, 섬세하고 수려해야 한다.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눈꼬리보다 길게 뻗은 듯 예쁘게 정돈되고 윤택한 눈썹을 좋은 형태의 눈썹이라고 할 수 있다. 돼지털처럼 거칠고 푸석푸석 하고 탁하면 좋지 않은 눈썹이라 할 수 있다.

관상학의 12궁중에서 형제궁(兄弟宮)에 속하여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나타냄으로 형제관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등의 혈육관계 또한 읽을 수 있다. 좋은 눈썹을 타고난 사람은 부모, 형제궁이 좋으며, 나아가 배우자, 자녀 복까지 좋다.<sup>31)</sup> 또한 눈썹으로 동기간의 우애를 보기도 하여 연고자, 동업자 등의 대인관계나 그 사람의 명예, 성품, 학업성취도, 현명함, 수명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예능과 재능을 판단하기도 한다. 본래 눈썹의 형상에서는 개인의 숨겨진 성질 즉, 심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있는 눈썹의 형상은 본인의 현재 모습

28) 김연희. (2015). 앞의 논문, p.25.

29) 전인호. (2009). 앞의 책, p.77.

30) 홍성남. (2014). 『인생과 관상』. 서울: 책과나무, p.98.

31) 신기원. (2013). 『신기원의 풀 관상학』. 경기: 위즈덤하우스, p.127.

을 나타낸다.

눈썹의 형태에 따라 대표적으로 의미 차이와 개인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눈썹이 고우면 마음도 곱고 눈썹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다.<sup>32)</sup> 성격이 약한 사람은 듬성듬성하고 약한 눈썹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성질의 사람은 힘차 보이는 눈썹을 가지고 있다. 눈썹의 털이 가늘면서 많으면 유순한 심성으로 섬세한 성격으로 보는 반면 털이 굵으면서 많으면 성격 또한 굵고 대범한 것으로 본다. 초승달 형태의 눈썹은 남녀를 불문하고 섬세하면서 다정다감한 감정의 소유자인 것으로 본다. 좋지 않은 눈썹형태의 예로는 눈썹 중간이 끊기거나 눈썹머리가 서로 붙거나 혹은 눈썹 중간 중간이 빠진 모양이다. 이러한 눈썹의 형태를 가진 사람은 형제자매간의 우애에 문제가 있다. 자식운도 약하며, 눈썹이 너무 진하면서 뻣뻣하게 나있으면 일생에 막힘이 많아 좋지 않은 눈썹으로 본다.

다음 <그림 4>는 관상학에서의 눈썹 세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눈썹 세분도<sup>33)</sup>

32) 김현남. (2009). 앞의 책, p.177.

33) 홍성남. (2014). 앞의 책, p.98.

## 제 3 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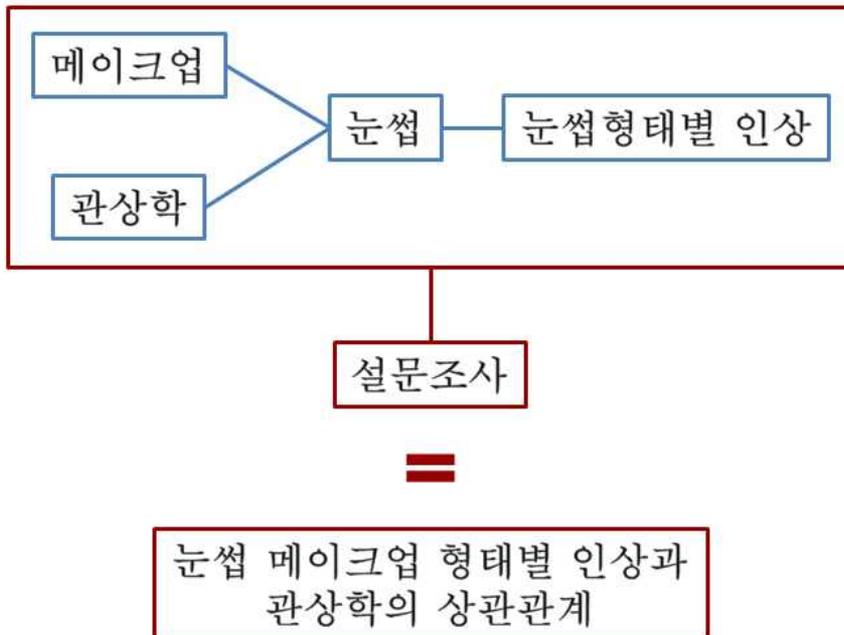
### 제 1 절 연구내용 및 모형

본 연구는 얼굴의 인상변화에 중요한 부위로서 관상학적으로 중정에 해당하는 눈썹에 초점을 두었으며,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에 나타난 인상변화에 관련하여 관상학에 초점을 두어 국내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메이크업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얼굴형과 눈썹형태를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눈썹이미지를 자극물로 제작하여 반영한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눈썹형태별 인상과 관상학적 인상의 일치성에 관련한 상관관계 및 호감적인 인상의 눈썹형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식화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제 2 절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의 연구결과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메이크업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서면을 통한 설문과 더불어 Google 설문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를 소셜네트워크에 공개된 메이크업 샵 및 메이크업 관련 비즈니스 계정에 배포하여 서면 설문과 온라인 설문의 병행을 통해 조사되었다.

설문기간으로는 2018년 05월 31일부터 2018년 06월 05일까지 총 6일간 근무기간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의 메이크업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 총 304명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응답된 설문지 304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마지막 문항에서 의 모두 체크되거나 한 눈썹의 형태로만 통일하여 체크된 불성실한 응답 2부를 조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충실하게 설문 응답된 총 302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응답 비율

구분	단위	전부 응답	미 응답	부적당한 응답	합계
서면	응답 수(명)	11	0	0	11
	백분율(%)	100.0	0.0	0.0	100.0
온라인	응답 수(명)	291	0	2	293
	백분율(%)	99.3	0.0	0.7	100.0
응답 수(명)		302	0	2	304
응답 백분율(%)		99.3	0.0	0.7	100.0

### 제 3 절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들과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두어 빈도수가 높이나 타난 눈썹형태별 긍정적, 부정적 인상에 따른 형용사 총 18개를 발취하여 자극물 제시 및 객관식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각 문항에 응답을 듣는 설문통계 방식을 선택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련하여 5문항, 조사대상자의 근무형태 및 경력 등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4문항, 메이크업에 관련한 7문항, 관상학에 관련한 6문항, 눈썹형태별 일반적 인식과 관상학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7문항과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3문항으로 총 23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빈도분석 및 SPSS 23.0 버전의 t-test로 측정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의 객관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메이크업과 관상학에서 기본 눈썹의 형태 분류와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 형용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영향력 및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SPSS 23.0 의 t-test 수치분석을 하였다.

셋 째, 분석된 수치결과로 눈썹 메이크업에 따른 조사대상자와 관상학적 인상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 제 4 장 연구결과 및 고찰

### 제 1 절 선행연구

#### 1) 메이크업에 관련한 연구 동향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헤어라인, 광대, 턱의 골격에 따라 분류된 얼굴형을 분석하였으며, 각 눈썹의 형태별 대표 인상과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상변화에 있어 효과적인 부위는 눈썹으로서 눈썹 메이크업 만으로도 인상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표 4〉 각 문헌에 따른 얼굴형 명칭의 종류와 분류 수

연구자	분류 수	얼굴형 명칭 분류
이주희(2008)	5	타원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주연빈(2014)	5	계란형, 장방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백고은(2013)	6	란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장윤진(2006)	6	타원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황은임(2012)	6	계란형, 긴형,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

얼굴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한 연구자로는 이주희(2008), 주연빈(2014)이 있으며, 6가지로 분류한 연구자로는 백고은(2013), 장윤진(2006), 황은임(2012)으로 〈표 4〉와 같이 모두 비등한 명칭으로 얼굴형을 분류 및 제시하였다.

다른 명칭이나 같은 형태의 얼굴형으로 계란형과 타원형, 긴형과 장방형이 다루어졌으며, 이마와 턱이 좁은 마름모형이나 이마가 좁고 턱이 넓은 삼각형의 얼굴형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5〉 7가지 얼굴 유형의 형태와 특성<sup>34)</sup>

얼굴형	특성
계란형	이마 선은 턱선 보다 약간 넓으며, 완전한 균형을 갖춘 얼굴형으로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
등근형	볼과 턱 선이 넓고, 볼과 헤어라인이 등글며 얼굴이 전체적으로 짧은 형
역삼각형	이마가 폭이 넓고 크며 양미간이 넓고 턱 선이 좁으며 광대뼈가 높게 자리 잡은 얼굴형
삼각형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으며 턱 선은 넓고 이마는 좁으며, 양쪽 광대뼈 사이와 양미간이 좁은 얼굴형
사각형	헤어라인과 볼 선이 직선적이고 이마가 넓고 턱 선이 각지며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
긴형	긴 코의 소유자이며, 얼굴 전체적으로 사각의 좁고 긴 얼굴형
마름모형	좁은 이마, 높고 넓은 볼거진 광대뼈, 좁고 뾰족한 턱을 가진 얼굴형

〈표 5〉는 앞서 언급된 모든 얼굴형 명칭에 따라 형태의 특성을 정의한 것으로서 각 얼굴형의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34) 정광하. (2007). 『메이크업이 이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속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표 6〉 각 문헌에 따른 눈썹형태별 명칭의 종류와 분류 수

연구자	분류 수	눈썹형 명칭 분류
강은주 (2003)	5	수평형, 아치형,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조선영 (2012)	5	기본형, 직선형, 아치형, 각진형, 화살형
이정은 (2003)	6	표준형, 수평형, 아치형,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조소영 (2013)	6	표준형, 수평형, 아치형,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눈썹 메이크업에 있어 〈표 6〉과 같이 각 문헌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5가지로 분류한 강은주(2003), 조선영(2012)과 6가지로 분류한 이정은(2003), 조소영(2013)이 있다.

각 문헌에서는 수평형, 아치형,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의 5가지의 분류를 통한 연구가 있었으며, 표준형을 함께 포함하여 6가지 눈썹의 기본 형태를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

명칭으로는 표준형은 기본형으로 일자형은 수평형, 직선형으로 각진형과 상승형은 갈매기형, 화살형으로 연구자마다 명칭의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선행연구자들에 따른 눈썹형태별 어울리는 얼굴형

눈썹의 형태	연구자	어울리는 얼굴형
표준형	김진경(2015)	모든 얼굴형
일자형	김진경(2015)	긴형
	백고은(2013)	긴형
	황은임(2013)	긴형
아치형	김진경(2015)	역삼각형, 마름모형
	백고은(2013)	각진형, 역삼각형
	황은임(2013)	각진형, 역삼각형
각진형	김진경(2015)	등근형
	백고은(2013)	등근형
상승형	김진경(2015)	등근형, 개성없는 얼굴
	백고은(2013)	등근형, 각진형
	황은임(2013)	등근형, 각진형, 마름모형
처진형	연구자 없음	

눈썹의 형태별 어울리는 얼굴형을 제시한 연구로는 〈표 7〉과 같이 김진경(2015), 백고은(2013), 황은임(2013)이 있다.

표준형과 각진형 눈썹의 형태는 선행연구자가 모두 동일하게 어울리는 얼굴형을 제시하였으나, 아치형과 상승형 눈썹의 형태는 마름모 얼굴형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처진형의 눈썹형태에 어울리는 얼굴형을 제시한 연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선행연구에 따른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연구자	형용사
강은주 (2005)	젊은, 활동적인, 여성적인, 요염한, 어른스러운, 단정한, 세련된, 샤프한, 개성적인, 동적인, 지적인, 상냥한, 부드러운, 귀여운, 어리석은, 슬픈
김규량 (2016)	여성적인, 젊은, 활동적인, 귀여운, 발랄한, 친절함, 이기적인, 단정한, 단순한, 융통성이없는, 긴장감있는, 날씬한, 실질적인, 실천적인, 객관적인, 엄격한, 무뚝뚝한, 현명한, 온화한, 조용한, 남성적인, 직선적인, 요염한, 상냥한, 우아한, 고전적인, 성숙한, 동양적인, 섬세한, 친화력있는, 자애로운, 부드러운, 매혹적인, 화려한, 우유부단한, 샤프한, 세련된, 주관적인, 강한, 절도있는, 박력적인, 날카로운, 개성적인, 지적인, 관능적인, 사무적인, 독립심이강한, 인내력이있는, 동적인, 적극적인, 시원한, 야성적인, 사나운, 능동적인, 기복이심한, 승부욕이강한, 어리석은, 슬픈, 소극적인, 겸손한, 모자란, 우울한, 사교적인, 배려심이있는, 바보스러운, 천박한
김진경 (2015)	젊은, 활동적인, 동적인, 야성적인, 여성적인, 요염한, 노숙한, 지적인, 세련된, 깔끔한, 샤프한, 개성적인, 성숙한, 상냥한, 온화한, 귀여운, 슬픈, 부드러운, 겸손한, 어리석은, 모자란, 천박한
이화선 (2009)	세련된, 지적인, 단정한, 절도있는, 박력적인, 엄격한, 날카로운, 주관적인, 활동적인, 온화한, 부드러운, 고전적인, 친절함, 유순한, 섬세한, 자애로운, 여성스러운, 동양적인, 우아한, 매혹적인, 젊은, 날씬한, 긴장감있는, 이기적인, 객관적인, 온화한, 고집스러운, 안정감있는, 지루한, 남성적인, 조용한, 야성적인, 사나운, 시원한, 거만한, 능동적인, 우울한, 바보스러운, 겸손한, 어리석은, 희극인, 피곤해보이는, 둔한, 천박한, 귀여운, 어린, 슬픈
한보현 (2009)	여성적인, 깨끗한, 우아한, 온화한, 부드러운, 섬세한, 요염한, 노숙한, 고전적인, 화려한, 남성적인, 이기적인, 고집스러운, 개성적인, 야성적인, 동적인, 활동적인, 거만한, 날카로운, 사나운, 강한, 세련된, 샤프한, 엄격한, 지적인, 어른스러운, 안정한

각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연구에 관하여 〈표 8〉과 같이 강은주(2005), 김규량(2016), 김진경(2015), 이화선(2009), 한보현(2009)의 5가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인상에 관한 형용사를 발취하였다.

앞에서 나타난 형용사 빈도수 분석을 통하여 각 눈썹의 형태별 대표 인상을 <표 9>에서 <표 14>와 같이 발취하였다.

<표 9> 메이크업에서 표준형에 속하는 눈썹

표준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여성적인(2), 깨끗한(1), 젊은(1), 귀여운(1), 활동적인(1), 발랄한(1), 친절한(1)
대표 인상	여성적인
긍정적 인상	깨끗한, 젊은, 귀여운, 활동적인, 발랄한, 친절한
부정적 인상	없음

<표 10> 메이크업에서 일자형에 속하는 눈썹

일자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젊은(4), 활동적인(3), 이기적인(3), 단정한(2), 현명한(2), 온화한(2), 조용한(2), 남성적인(3), 객관적인(2), 날씬한(2), 단순한(1), 고집스러운(2), 긴장감 있는(2), 엄격한(1), 안정감 있는(1), 지루한(1), 실질적인(1), 실천적인(1), 직선적인(1), 융통성이 없는(1)
대표 인상	젊은
긍정적 인상	활동적인, 단정한, 현명한, 온화한, 객관적인, 날씬한
부정적 인상	이기적인, 남성적인, 고집스러운

〈표 11〉 메이크업에서 아치형에 속하는 눈썹

아치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부드러운(4), 요염한(4), 성숙한(4), 여성적인(4), 친절한(3), 고전적인(3), 화려한(2), 우아한(3), 매혹적인(2), 온화한(3), 상냥한(3), 자애로운(2), 섬세한(3), 동양적인(2), 친화력 있는(1), 우유부단한(1)
대표 인상	부드러운, 요염한, 성숙한, 여성적인
긍정적 인상	친절한, 상냥한, 섬세한, 우아한, 온화한, 자애로운, 화려한
부정적 인상	우유부단한

〈표 12〉 메이크업에서 각진형에 속하는 눈썹

각진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절도 있는(2), 지적인(4), 박력적인(2), 세련된(5), 엄격한(3), 날카로운(2), 성숙한(4), 남성적인(1), 강한(1), 개성적인(2), 주관적인(2), 활동적인(2), 관능적인(1), 사무적인(1), 단정한(3), 안정한(1), 샤프한(4), 독립심이 강한(1), 인내력 있는(1)
대표 인상	세련된
긍정적 인상	지적인, 성숙한, 샤프한, 활동적인
부정적 인상	날카로운, 주관적인

〈표 13〉 메이크업에서 상승형에 속하는 눈썹

상승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여성적인(4), 활동적인(3), 동적인(4), 사나운(3), 날카로운(3), 승부욕이 강한(1), 능동적인(2), 강한(2), 거만한(2), 개성적인(4), 시원한(2), 엄격한(1), 적극적인(1), 기복이 심한(1), 지적인(3)
대표 인상	개성적인, 여성적인, 동적인
긍정적 인상	지적인, 활동적인, 시원한
부정적 인상	날카로운, 사나운

〈표 14〉 메이크업에서 처진형에 속하는 눈썹

처진형 눈썹	
눈썹형태	
형용사(빈도수)	슬픈(4), 부드러운(4), 겸손한(3), 온화한(3), 피곤해 보이는(1), 바보스러운(2), 귀여운(4), 천박한(3), 배려심 있는(1), 소극적인(1), 어리석은(3), 동정심 많은(1), 둔한(1), 어린(1), 우울한(2), 모자란(2), 사교적인(1)
대표 인상	슬픈, 부드러운, 귀여운
긍정적 인상	겸손한, 온화한
부정적 인상	천박한, 어리석은, 우울한, 모자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눈썹의 형태를 분류하여 각 형태별 긍정적인 인상과 부정적인 인상을 완연하게 알 수 있었으며, 각 눈썹의 형태별 대표 인상과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을 제시하였다.

표준형 눈썹에서의 인상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여성적인’, ‘깨끗한’, ‘발랄한’ 등의 이미지가 있었다.

일자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젊은’, ‘활동적인’, ‘단정한’, ‘현명한’ 등이 있었으며, 부정적으로는 ‘이기적인’, ‘남성적인’ 등의 인상이 있었다.

아치형 눈썹에서는 긍정적 인상인 ‘여성적인’, ‘우아한’, ‘온화한’ 등과 부정적인 인상에서는 ‘우유부단한’이 있었다.

각진형 눈썹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으로 ‘세련된’, ‘샤프한’, ‘지적인’ 등이 있었으며, 부정적으로는 ‘날카로운’, ‘주관적인’ 인상이 있었다.

상승형 눈썹에서는 ‘개성적인’, ‘지적인’ 등의 긍정적 인상과 ‘날카로운’, ‘사나운’ 등의 부정적 인상이 있었다.

처진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부드러운’, ‘겸손한’, ‘귀여운’ 등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인상으로는 ‘어리석은’, ‘천박한’, ‘모자란’, ‘우울한’ 등의 각 눈썹의 형태 중 가장 많은 부정적 인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이미지 변화 부위의 차이<sup>35)</sup>

항목	피부		눈썹		눈		입술		전체		P	
	N	%	N	%	N	%	N	%	N	%		
연령	20세	0	.0	22	46.8	20	42.6	5	10.6	47	100.0	.095
	21세	2	3.4	31	52.5	22	37.3	4	6.8	59	100.0	
	22세	0	.0	42	59.2	27	38.0	2	2.8	71	100.0	
	23세이상	0	.0	24	49.0	25	51.0	0	.0	49	100.0	
학년	1학년	0	.0	25	44.6	26	46.4	5	8.9	56	100.0	.206
	2학년	2	3.1	33	51.6	25	39.1	4	6.3	64	100.0	
	3학년	0	.0	41	60.3	25	36.8	2	2.9	68	100.0	
	4학년	0	.0	20	52.6	18	47.4	0	.0	38	100.0	
전공	인문계열	0	.0	23	67.6	9	26.5	2	5.9	34	100.0	.023 *
	자연계열	0	.0	14	45.2	14	45.2	3	9.7	31	100.0	
	공과계열	2	5.0	15	37.5	19	47.5	4	10.0	40	100.0	
	보건계열	0	.0	21	48.8	22	51.2	0	.0	43	100.0	
	예술계열	0	.0	46	59.0	30	38.5	2	2.6	78	100.0	
전체	2	.9	119	52.7	94	41.6	11	4.9	226	100.0		

\*p<.05

해당 표는 연구자 김진경(2015)의 설문문항 ‘귀하가 화장으로 얼굴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어느 부위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분석으로서 이미지 변화에 있어 효과적인 부위는 전체적으로 ‘눈썹’에 해당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눈썹의 형태는 인상변화에 있어 중요한 부위임을 알 수 있다.

35) 김진경. (2015). 『눈썹 메이크업 평균변화율에 따른 얼굴 이미지 감성평가』. 중부대학교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34.

2) 관상학에 관련한 연구 동향

〈표 16〉 기본 눈썹형태에 해당하는 관상학적 눈썹형태 분류

눈썹 형태	기본 눈썹형태에 해당하는 관상학적 눈썹형태		
표준형	청수미	용미	
			
일자형	일자미	호미	단촉수미
			
아치형	신월미	유엽미	경청미
			
각진형	소추미	소소추미	침도미
			
상승형	나한미	검미	교가미
			
처진형	팔자미	유조미	파사미
			

〈표 16〉에서는 국내문헌 신성은(1998), 안준범(2017), 오현리(2001)를 참고하여 관상학적 눈썹의 형태를 기본 6가지 눈썹의 형태를 기초로 두어 분류한 것이다.

표준형 눈썹에 속하는 ‘청수미’, ‘용미’를 일자형에는 ‘일자미’, ‘호미’, ‘단촉수미’, 아치형에는 ‘신월미’, ‘유엽미’, ‘경청미’, 각진형에는 ‘소추미’, ‘소소추미’, ‘침도미’, 상승형에는 ‘나한미’, ‘검미’, ‘교가미’, 처진형에는 ‘팔자미’, ‘유조미’, ‘파사미’로 각각의 눈썹의 기본 형태에 포함된 관상학적 눈썹의 형태로 나타냈다.

〈표 17〉 관상학 관련문헌에 따른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연구자	형용사
김광일 (2013)	아름다운, 단정한, 총명한, 당당한, 위엄있는, 강직한, 명예로운, 부귀한, 맑은, 고집적인, 날카로운, 외로운, 상냥한, 고상한, 감성적인, 독한
박중환 (2016)	단정한, 맑은, 아름다운, 총명한, 부귀한, 주관적인, 신념있는, 독단적인, 강직한, 위엄있는, 담력있는, 호쾌한, 충직한, 인자한, 화목한, 소극적인, 상냥한, 인내력이부족한, 무정한, 인정없는, 신의있는, 독한, 섹시한, 감성적인, 여성스러운, 흥포한, 교활한, 음험한, 거짓적인, 집요한, 온화한, 저돌적인, 용맹한, 날카로운, 부유한
신성은 (1998)	부귀한, 인정있는, 맑은, 순한, 총명한, 아름다운, 유능한, 겸손한, 위엄있는, 용맹한, 자애로운, 궁핍한, 단정한, 충효한, 인자한, 강직한, 정이있는, 교활한, 신의있는, 화목한, 순한, 일관성있는, 인정없는, 거짓적인, 흥포한, 교활한, 사나운, 고집있는, 외로운, 천박한, 혐오스러운, 부유한
안준범 (2017)	총명한, 부귀한, 순탄한, 명예로운, 권위적인, 의리있는, 충효한, 강직한, 화목한, 질투적인, 날카로운, 교활한, 흥포한, 명예로운, 부유한, 사나운, 궁핍한, 치졸한
엄원섭 (2007)	맑은, 단정한, 아름다운, 총명한, 강직한, 부귀한, 화목한, 남성적인, 부드러운, 진지한, 용기있는, 의지있는, 결단력있는, 신의있는, 우직한, 신망있는, 여성적인, 순수한, 상냥한, 사교적인, 인정있는, 소극적인, 실천력이부족한, 직감적인, 시원한, 신뢰적인, 인내심이부족한, 고집적인, 흥포한, 교활한, 음험한, 거짓적인, 독한, 날카로운, 외로운, 위엄있는, 온화한, 상냥한, 이기적인, 강직한, 신념있는, 용맹한, 급한, 감정적인, 적극적인, 자애로운, 의리있는, 여유로운, 낭비적인, 허영적인, 궁핍한
이우영 (2010)	아름다운, 맑은, 총명한, 위엄있는, 부귀한, 화목한, 인정있는, 충직한, 인자한, 강직한, 고상한, 신의있는, 단정한, 궁핍한, 인정없는, 교활한, 음험한, 거짓적인, 사나운, 외로운, 권위있는, 흥포한, 부유한

관상학적 눈썹의 형태별 인상의 형용사 분류는 〈표 17〉과 같이 국내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인상을 연구하였다.

〈표 18〉 중복적인 인상 의미에 대한 형용사 분류

흡사한 의미를 가진 형용사	대표 인상
명석한, 총명한, 영리한, 지모가 뛰어난, 지혜로운	총명한
아름다운, 수려한	아름다운
맑은, 깨끗한, 청명한, 청빈한	맑은
부귀한, 고귀한, 귀한, 대귀한	부귀한
부유한, 풍족한	부유한
담력 있는, 용기 있는, 용맹한	용맹한
상냥한, 마음이 고운, 심성이 고운	상냥한
빈곤한, 궁핍한, 청빈한	궁핍한
반듯한, 가지런한, 단정한	단정한
흥악한, 포악한, 흥포한, 과격한, 악랄한, 흉한	흥포한
간사한, 교활한, 조악한, 간특한, 간교한, 사특한	교활한
고독한, 외로운, 쓸쓸한	외로운
강직한, 강인한, 강한, 청렴한	강직한

눈썹의 형태별 관상학적 인상에 따른 형용사 표현은 무수히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었으며, 국내문헌과 선행연구에서는 관상학적인 눈썹의 형태별 인상의 형용사를 중점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자녀의 복이 있다.’, ‘배우자의 운이 좋다.’ 등의 육안으로 느끼는 것이 불가능한 ‘운’과 ‘복’이 눈썹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되어있다. 이를 명확한 인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정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혹은 ‘마음이 강직한 성격이다.’와 같은 형태의 서술부분에서 ‘단정한’, ‘강직한’과 같이 눈썹의 형태별 인상 형용사를 발취하였으며, 인상의 형용사 분류에 있어 의미가 같거나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

어로 기재되어진 명석한, 총명한, 영리한 등과 같은 형용사를 한 단어로 선정하여 통일화 하여 <표 18>에 정립하였다.

관상학적 눈썹의 형태에서는 메이크업에서의 눈썹의 균형도와 혹은 눈썹 메이크업에 있어 표준 형태가 존재하는바와 같이 표준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촉수미’, ‘신월미’, ‘청수미’ 등 눈썹의 털의 거친 정도와 털의 방향, 퍼짐 및 끝김을 중점으로 하여 다양한 눈썹의 모양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앞에서 나타난 형용사 빈도수 분석을 통하여 각 눈썹의 형태별 대표 인상을 <표 19>에서 <표 24>과 같이 발취하였다.

<표 19> 관상학에서 표준형에 속하는 눈썹

표준형 눈썹		
눈썹형태	청수미	용미
		
형용사(빈도수)	아름다운(5), 부귀한(5), 인정 있는(1), 맑은(4), 순한(1), 유능한(1), 위엄있는(2), 단정한(3), 총명한(6), 당당한(1), 강직한(2), 명예로운(1)	
대표 인상	총명한	
긍정적 인상	아름다운, 부귀한, 맑은, 단정한	
부정적 인상	없음	

<표 20> 관상학에서 일자형에 속하는 눈썹

일자형 눈썹			
눈썹형태	일자미	호미	단촉수미
			
형용사(빈도수)	맑은(4), 부귀한(5), 겸손한(1), 위엄 있는(3), 용맹한(2), 자애로운(1), 궁핍한(1), 단정한(4), 충효한(2), 인자한(4), 강직한(4), 순탄한(1), 명예로운(1), 권위적인(1), 의리 있는(1), 화목한(2), 인정 있는(1), 충직한(1), 고집적인(1), 남성적인(1), 부드러운(1), 진지한(1), 의지 있는(1), 결단력 있는(1), 총명한(1), 주관적인(1), 신념 있는(1), 독단적인(1), 담력 있는(1), 호쾌한(1), 충직한(1)		
대표 인상	부귀한		
긍정적 인상	단정한, 맑은, 인자한, 강직한		
부정적 인상	주관적인, 고집적인		

〈표 21〉 관상학에서 아치형에 속하는 눈썹

아치형 눈썹			
눈썹형태	신월미	유엽미	경정미
			
형용사 (빈도수)	부귀한(4), 맑은(4), 아름다운(3), 인정 있는(1), 신의 있는(2), 화목한(5), 순한(1), 일관성 있는(1), 명예로운(1), 총명한(3), 고상한(2), 충직한(1), 상냥한(3), 감성적인(2), 우직한(1), 신망 있는(1), 여성적인(2), 순수한(1), 사교적인(1), 인정 있는(1), 소극적인(2), 실천력이 부족한(1), 직감적인(1), 시원한(1), 신뢰 있는(1), 인내심이 부족한(2), 고집적인(1), 무정한(1), 충직한(1), 섹시한(1)		
대표 인상	화목한		
긍정적 인상	부귀한, 맑은, 상냥한, 총명한, 아름다운, 고상한, 여성적인		
부정적 인상	무정한, 인내심이 부족한		

〈표 22〉 관상학에서 각진형에 속하는 눈썹

각진형 눈썹			
눈썹형태	소추미	소소추미	침도미
			
형용사 (빈도수)	인정 없는(2), 궁핍한(2), 부유한(2), 교활한(5), 흉포한(5), 거짓적인(4), 사나운(2), 고집적인(1), 질투적인(1), 날카로운(1), 맑은(1), 음험한(3), 독한(3), 집요한(1)		
대표 인상	교활한, 흉포한		
긍정적 인상	부유한		
부정적 인상	거짓적인, 궁핍한, 사나운, 음험한, 독한, 인정 없는		

〈표 23〉 관상학에서 상승형에 속하는 눈썹

상승형 눈썹			
눈썹형태	나한미	검미	교가미
			
형용사 (빈도수)	외로운(5), 날카로운(3), 부귀한(2), 위엄 있는(1), 총명한(5), 맑은(1), 궁핍한(2), 천박한(1), 혐오스러운(1), 흥포한(3), 명예로운(1), 부유한(1), 사나운(1), 치졸한(1), 권위적인(1), 인정 있는(1), 결단력 없는(1), 강직한(2), 아름다운(1), 위엄 있는(1), 온화한(2), 이기적인(1), 신념 있는(1), 용맹한(2), 결단력 있는(1), 의지 있는(1), 실천력 있는(1), 급한(1), 감정적인(1), 적극적인(1), 저돌적인(1)		
대표 이미지	총명한, 외로운		
긍정적 인상	부귀한, 강직한, 온화한, 용맹한		
부정적 인상	날카로운, 흥포한		

〈표 24〉 관상학에서 처진형에 속하는 눈썹

처진형 눈썹			
처진형	팔자미	유조미	파사미
			
형용사 (빈도수)	외로운(3), 총명한(1), 소극적인(1), 자애로운(2), 포용력 있는(1), 의리 있는(1), 여유 있는(1), 인정 있는(1), 낭비적인(1), 허영적인(1), 궁핍한(2)		
대표 인상	외로운		
긍정적 인상	자애로운		
부정적 인상	궁핍한		

표준형 눈썹에서의 인상에는 앞서 분석한 메이크업에서의 인상과 같이 부정적인 인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총명한’, ‘아름다운’, ‘부귀한’, ‘맑은’, ‘단정한’ 등의 이미지가 있었다.

일자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부귀한’, ‘단정한’, ‘맑은’, ‘인자한’, ‘강직한’ 이 있었으며, 부정적으로는 ‘주관적인’, ‘고집적인’ 인상이 있었다.

아치형 눈썹에서는 긍정적 인상인 ‘화목한’, ‘부귀한’, ‘맑은’, ‘상냥한’, ‘아름다운’, ‘고상한’ 등과 부정적인 인상에서는 ‘무정한’, ‘인내심이 부족한’ 이 있었다.

각진형 눈썹에서는 긍정적인 인상으로 ‘부유한’이 있었으며, 부정적으로는 ‘거짓적인’, ‘궁핍한’, ‘사나운’ 등의 인상이 있었다.

상승형 눈썹에서는 ‘총명한’, ‘강직한’, ‘온화한’ 등의 긍정적 인상과 ‘날카로운’, ‘홍포한’ 등의 부정적 인상이 있었다.

처진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으로는 ‘자애로운’이 있고, 부정적인 인상으로는 ‘외로운’, ‘궁핍한’의 부정적 인상이 있었다.

〈표 25〉 관상학 특성에서 발취한 눈썹형태별 인상 형용사

관상학 특성에서 발취한 눈썹형태별 인상	
긍정적	부정적
아름다운, 자애로운, 상냥한, 단정한, 총명한, 부귀한, 화목한, 인자한, 강직한, 맑은	외로운, 궁핍한, 교활한, 홍포한, 주관적인, 날카로운, 고집적인, 거짓적인

메이크업과 관상학을 관련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복된 형용사를 우선으로 하여 〈표 25〉와 같이 총 18개로 긍정적 형용사 10개와 부정적 형용사 8개로 분류하였다.

##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26〉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290	96.0
	남성	12	4.0
연령	20대 미만	3	1.0
	20대	123	40.7
	30대	145	48.0
	40대	22	7.3
	50대	6	2.0
	60대 이상	3	1.0
학력	고졸이하	38	12.6
	전문대졸(재학중)	116	38.4
	4년제 대졸(재학중)	127	42.0
	대학원재학 이상	21	7.0
결혼 여부	미혼	227	75.2
	기혼	75	24.8
	기타	0	0.0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0	36.0
	200만원 대	118	39.1
	300만원 대	63	20.9
	400만원 대	7	2.3
	500만원 이상	5	1.7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신뢰도를 위하여 메이크업 관련 전문인 집단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여성 290명(96.0%), 남성 12명(4.0%)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에 관해서는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의 연령은 30대가 48.0%의 전체 1위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0대가 40.7%로 2위, 40대가 7.3%로 3위, 50대가 2.0%로 4위, 60대 이상이 1.0%로 6위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소셜네트워트에서 오픈된 메이크업 관련 비즈니스 대상, 온라인으로 진행된 특성으로 인해 소셜네트워트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많지 않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각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대졸(재학 중) 42.0%, 전문대졸(재학 중) 38.4%, 고졸이하 12.6%, 대학원재학 이상 7.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75.2%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이 24.8%, 기타가 0.0%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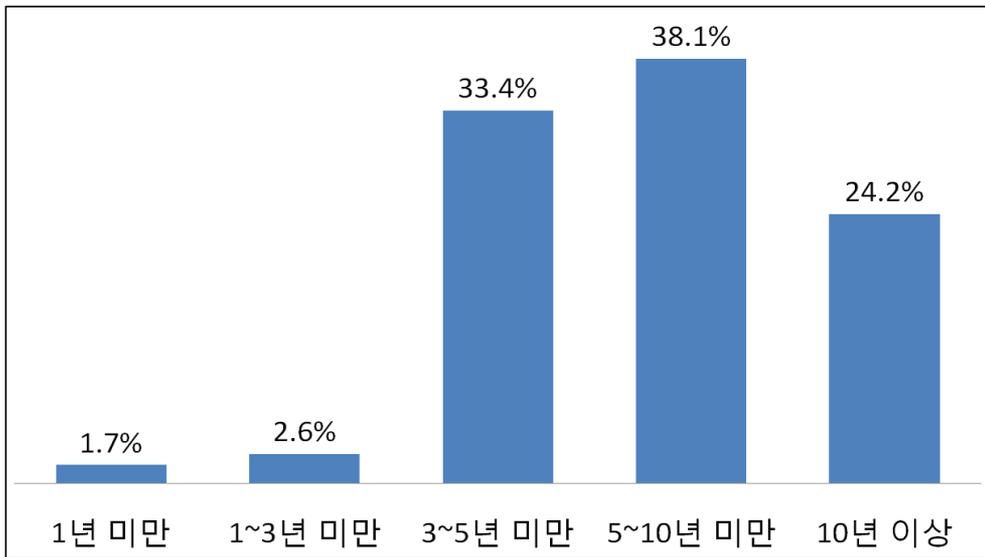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월 평균 소득으로는 200만원 대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미만이 36.0%, 300만원 대 20.9%, 400만원 대 2.3%, 500만원 이상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특성별 통계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7〉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 실무 경력기간

질문	귀하의 메이크업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합계
빈도(명)	5	8	101	115	73	302
백분율(%)	1.7	2.6	33.4	38.1	2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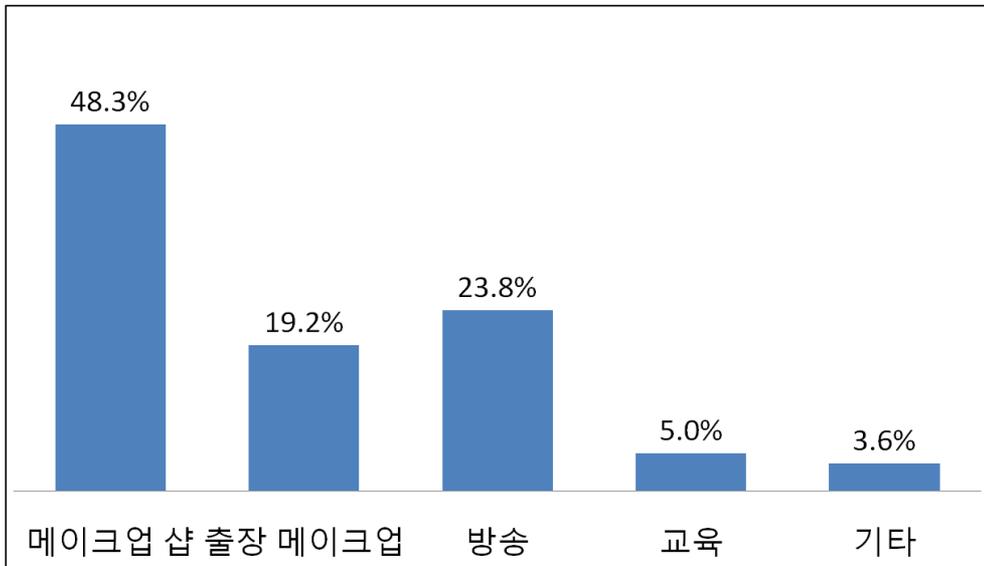


〈그림 5〉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 실무 경력기간 그래프

조사대상자의 실무 경력기간으로 ‘5~10년’ 38.1%(전체 1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5년’ 33.4%(전체 2위), ‘10년 이상’ 24.2%(전체 3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형태

질문	귀하의 근무지 형태는 무엇입니까?					
응답	메이크업 샵	출장 메이크업	방송	교육	기타	합계
빈도(명)	146	58	72	15	11	302
백분율(%)	48.3	19.2	23.8	5.0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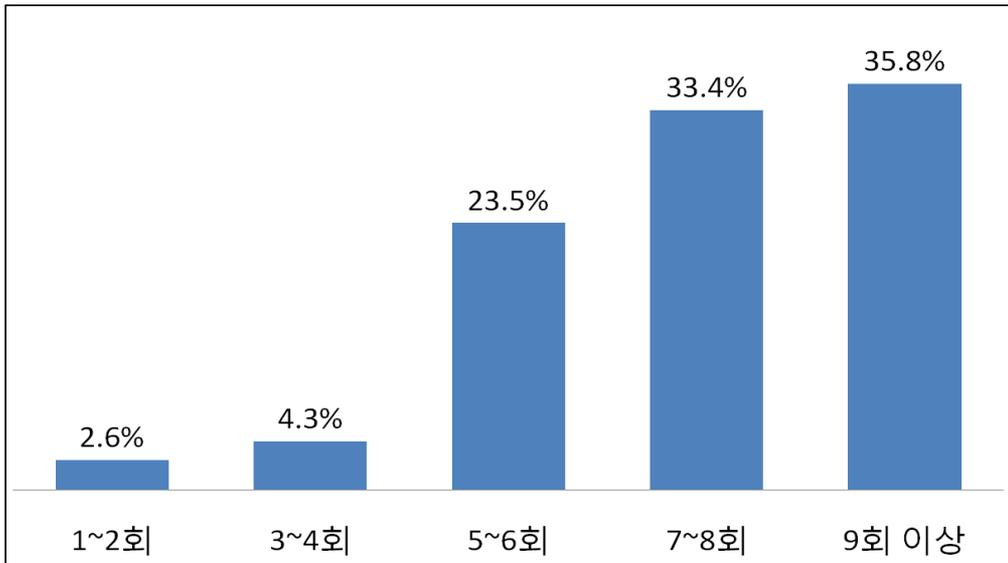


〈그림 6〉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형태 그래프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근무지를 5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메이크업 샵’이 48.3%(전체 1위)로 나타나 메이크업 샵에서 근무하는 전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뒤를 이어 ‘방송’ 23.8%(전체 2위), ‘출장메이크업’ 19.2%(전체 3위), ‘교육’ 5.0%(전체 4위), ‘기타’ 3.6%(전체 5위)의 순으로 〈표 28〉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형태가 조사되었다.

〈표 29〉 메이크업을 시술하는 빈도

질문	귀하가 메이크업을 시술해주는 횟수는 주 몇 회 정도 되십니까?					
	1~2회	3~4회	5~6회	7~8회	9회 이상	합계
빈도(명)	8	13	71	101	108	302
백분율(%)	2.6	4.3	23.5	33.4	35.8	100.0



〈그림 7〉 메이크업을 시술하는 빈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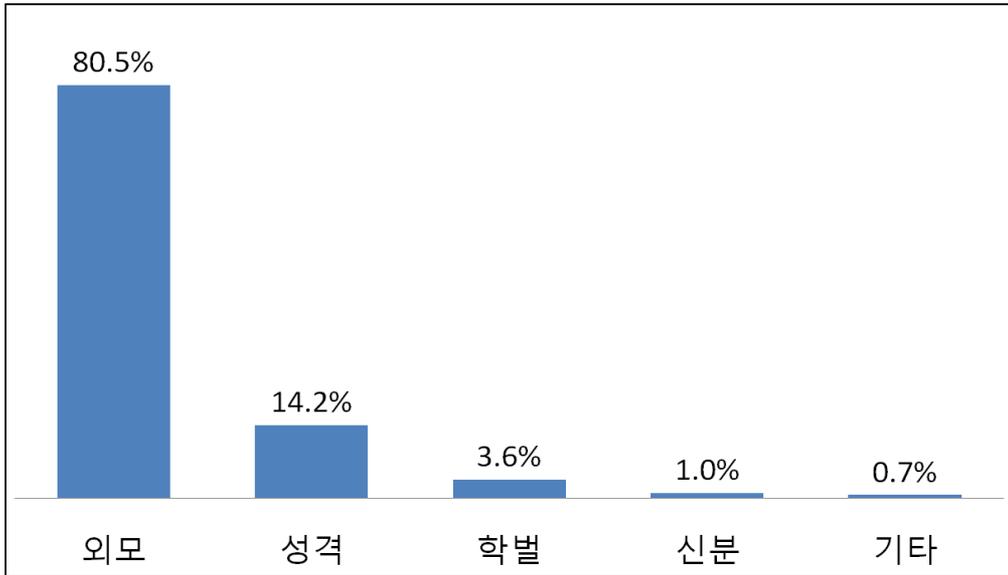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메이크업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의 메이크업 시술 빈도를 산출한 결과로서 조사대상자는 주 ‘9회 이상’을 한다는 응답이 35.8%(전체 1위)로 가장 높았으며, 주 ‘7~8회’ 33.4%(전체 2위), 주 ‘5~6회’ 23.5%(전체 3위), 주 ‘3~4회’ 4.3%(전체 4위)와 ‘1~2회’ 2.6%(전체 4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메이크업 시술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메이크업을 받는 사람 또한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메이크업에 관련한 특성

〈표 30〉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질문	귀하는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외모	성격	학벌	신분	기타	합계
빈도(명)	243	43	11	3	2	302
백분율(%)	80.5	14.2	3.6	1.0	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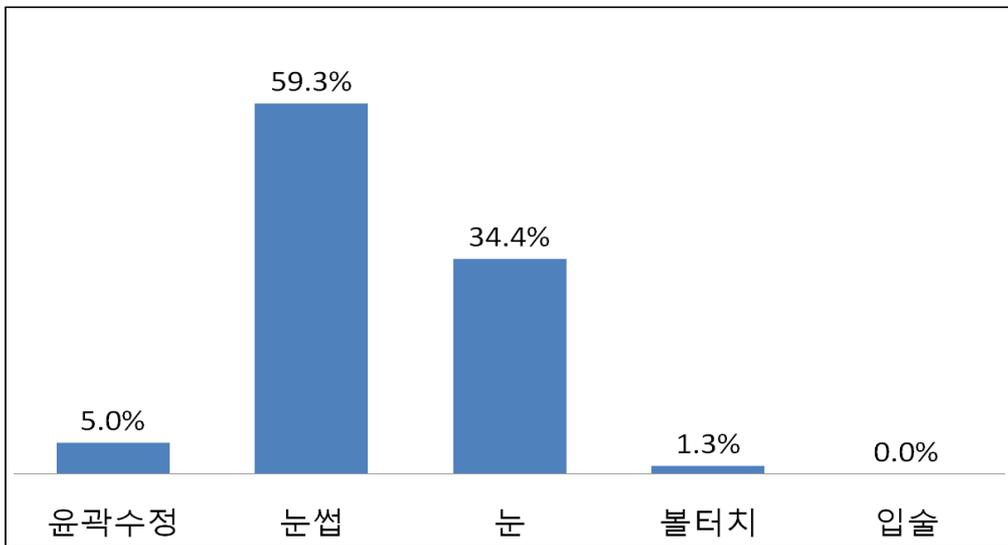
〈그림 8〉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프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외모’ 80.5% (전체 1위)로 타 요인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외모’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격’ 14.2%(전체 2위), ‘학벌’ 3.6%(전체 3위), ‘신분’ 1.0%(전체 4위), ‘기타’ 0.7%(전체 5위)의 결과로 과반수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은 인상에는 외모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외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

질문	귀하는 메이크업 시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곽수정	눈썹	눈	볼터치	입술	합계
빈도(명)	15	179	104	4	0	300
백분율(%)	5.0	59.3	34.4	1.3	0.0	100.0



〈그림 9〉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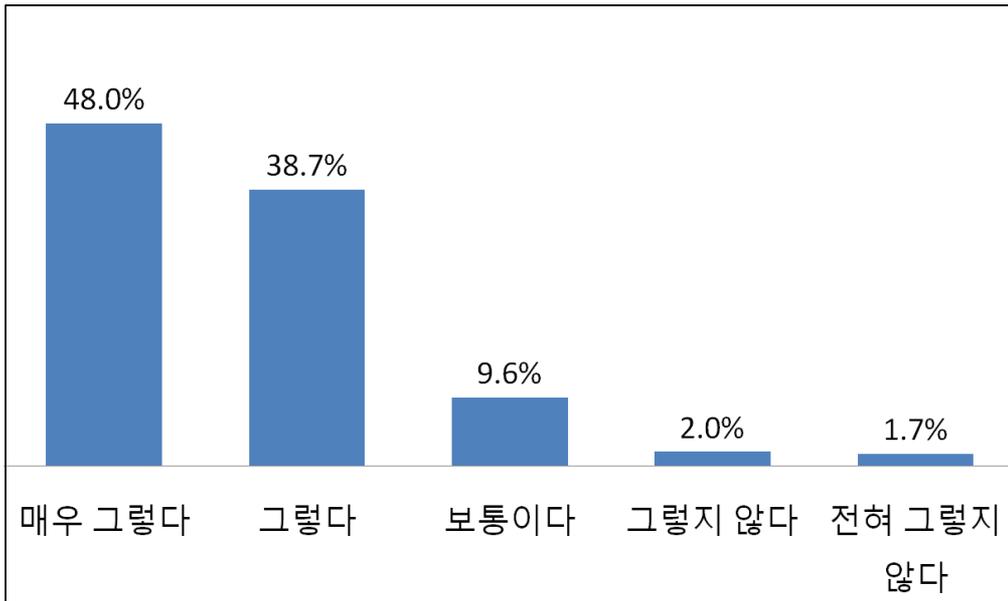
얼굴로 제한한 외모에서 메이크업 시 인상변화에 가장 많이 영향이 미치는 부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눈썹’ 59.3%(전체 1위)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눈’ 34.4%(전체 2위)로 관상학적으로는 중정에 위치한 얼굴 부위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윤곽수정’ 5.0%(전체 3위), ‘볼터치’ 1.3%(전체 4위)로 낮은 영향을 보였고, 입술은 0.0%(전체 5위)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자 김진경(2015), 조선영(2012)의 연구에서 눈썹의 형태변화가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상이하다.

〈표 32〉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

질문	귀하는 눈썹의 형태에 따라 인상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5	117	29	6	5	302
백분율(%)	48.0	38.7	9.6	2.0	1.7	100.0



〈그림 10〉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 그래프

‘귀하는 눈썹의 형태에 따라 얼굴인상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은 ‘매우 그렇다’ 48.0%(전체 1위), ‘그렇다’ 38.7%(전체 2위)로 전체 대상자의 80.1%는 눈썹형태가 인상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 평균 비교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20대 이하	126	4.29	.859	-.018	.986
	30대 이상	176	4.30	.844		
경력	10년 미만	229	4.24	.823	-.1826	.069+
	10년 이상	73	4.45	.913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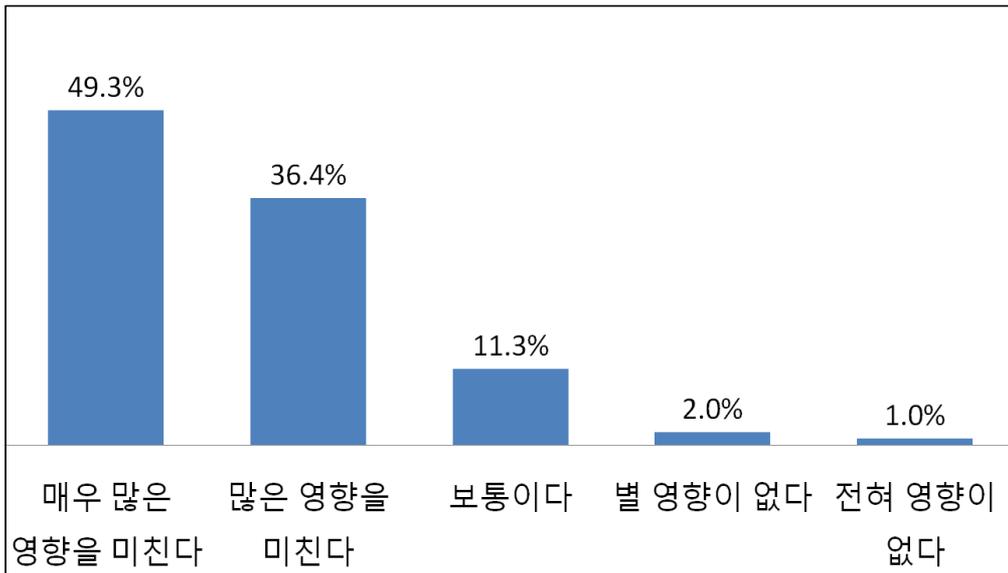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연령대별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4.29점을 나타냈고 30대 이상은 4.30점을 나타내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은 4.24점, 10년 이상은 4.45점으로 나타나 경력이 증가할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1)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변화 정도에 대해 그 이하 경력자들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질문	귀하는 눈썹 메이크업이 인상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통이다	별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합계
빈도(명)	149	110	34	6	3	302
백분율(%)	49.3	36.4	11.3	2.0	1.0	100.0



〈그림 11〉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그래프

눈썹 메이크업이 인상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49.3%(전체 1위), ‘많은 영향을 미친다’ 36.4%(전체 2위)로 전체 대상자의 85.7%가 눈썹 메이크업이 인상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 평균 비교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10년 미만	229	4.29	.797	-.860	.391
	10년 이상	73	4.38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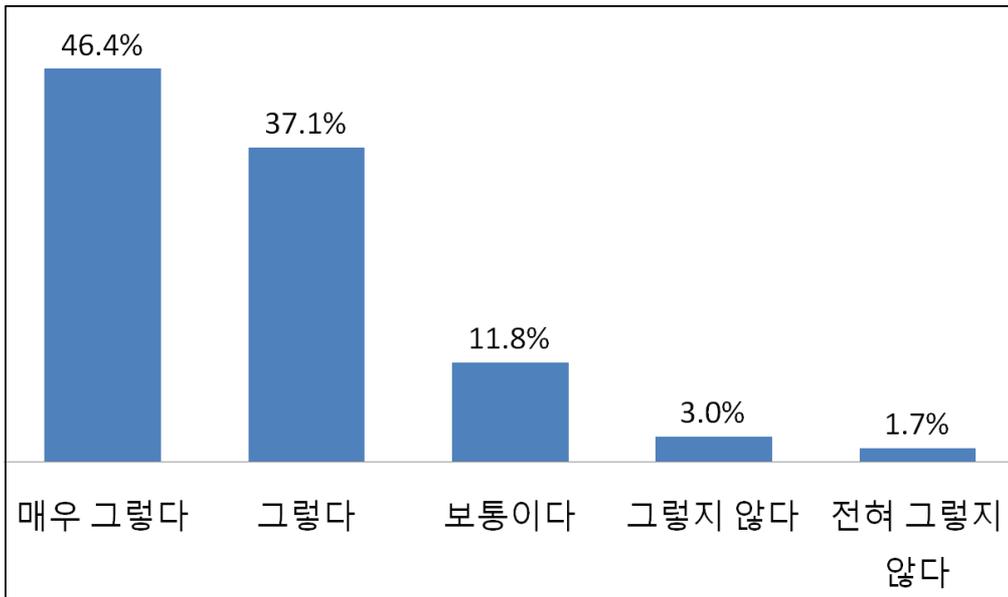
\*p<.05, \*\*p<.01, \*\*\*p<.001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에 대한 영향력 인식도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10년 미만의 경력자들은 4.29점을 나타냈고 10년 이상은 4.38점을 나타내 경력이 증가할수록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변화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호감적인 눈썹형태의 존재 여부

질문	귀하는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0	112	36	9	5	302
백분율(%)	46.4	37.1	11.8	3.0	1.7	100



〈그림 12〉 호감적인 눈썹형태의 존재 여부 그래프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46.4%(전체 1위), ‘그렇다’ 37.1%(전체 2위)로 전체 대상자의 83.5%가 호감적인 인상 표현의 눈썹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눈썹의 형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4-1〉 호감적인 표현이 가능한 눈썹형태 존재의 인식도 평균 비교

요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20대 이하	126	4.20	.921	-.603	.547
	30대 이상	176	4.26	.875		
경력	10년 미만	223	4.20	.870	-1.180	.239
	10년 이상	73	4.34	.96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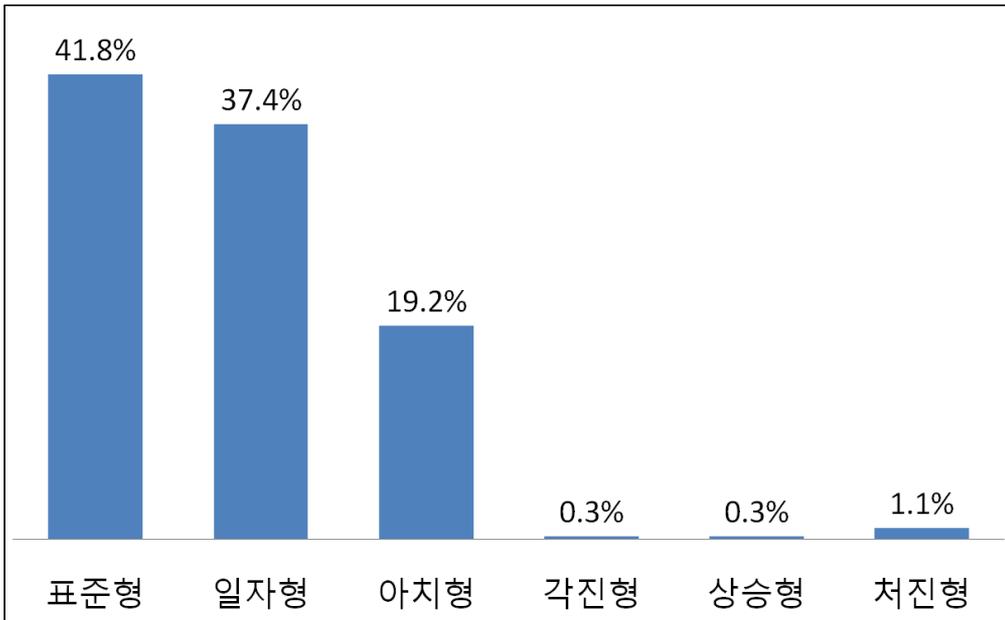
호감적인 표현이 가능한 눈썹형태 존재에 대한 인식도가 연령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20대 이하의 연령대는 4.20점을 나타냈고, 30대 이상은 4.26점을 나타내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력별로 호감적인 표현이 가능한 눈썹형태 존재의 인식도 차이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경력자들은 4.20점,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4.34점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높을수록 호감적인 표현이 가능한 눈썹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형태

질문	귀하는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합계
빈도(명)	159	142	73	1	1	4	380
백분율(%)	41.8	37.4	19.2	0.3	0.3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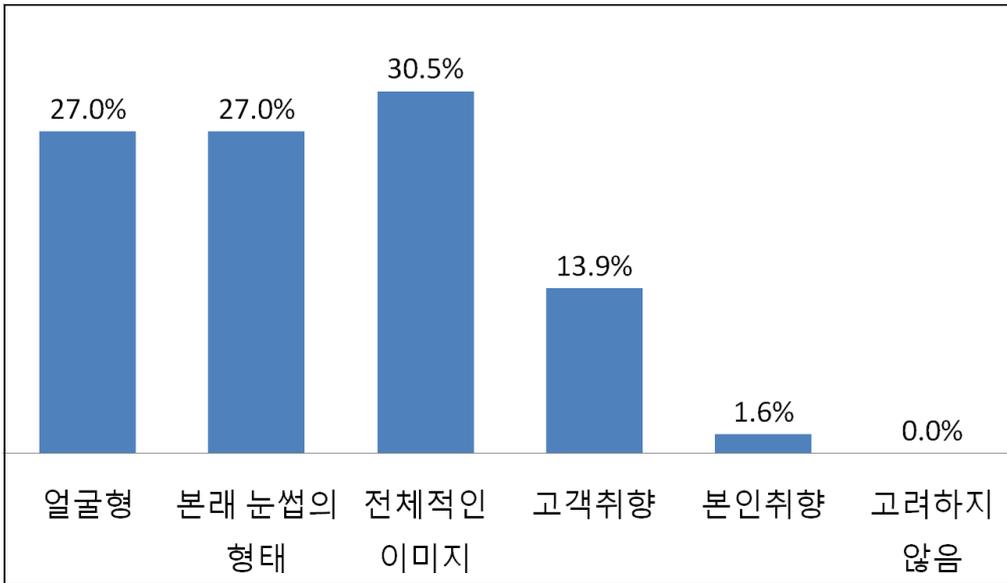


〈그림 13〉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형태 그래프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눈썹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표준형’ 41.8%(전체 1위), ‘일자형’ 37.4%(전체 2위), ‘아치형’ 19.2%(전체 3위), ‘각진형’ 0.3%(전체 4위), ‘상승형’ 0.3%(전체 4위), ‘처진형’ 1.1%(전체 5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진형과 상승형, 처진형은 호감적인 눈썹의 형태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메이크업 시 눈썹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

질문	귀하는 메이크업 시 눈썹의 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응답	얼굴형	본래 눈썹의 형태	전체적인 이미지	고객 취향	본인 취향	고려하지 않음	합계
빈도(명)	119	119	134	61	7	0	440
백분율(%)	27.0	27.0	30.5	13.9	1.6	0.0	100.0



〈그림 14〉 메이크업 시 눈썹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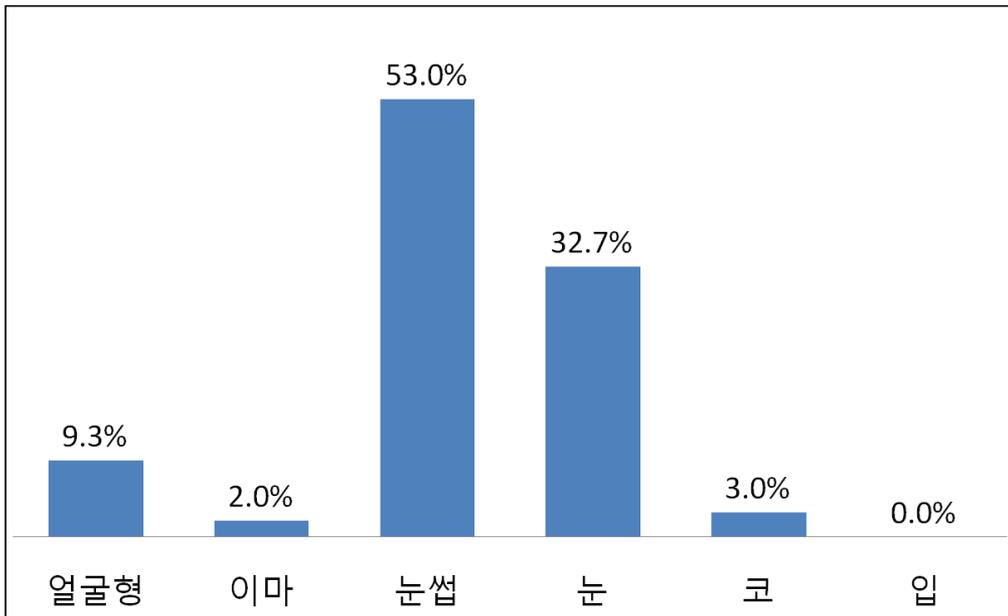
메이크업 시 눈썹의 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조사대상자들은 고객 얼굴의 ‘전체적인 이미지’ 30.5%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얼굴형’과 ‘본래 눈썹의 형태’가 27.0%로 나타났다.

이는 타 요소들 보다 얼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상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는 결과이다.

3) 조사대상자의 관상학에 관련한 특성

〈표 37〉 관상학에서 인상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

질문	귀하는 관상학에서 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형	이마	눈썹	눈	코	입	합계
빈도(명)	28	6	160	99	9	0	302
백분율(%)	9.3	2.0	53.0	32.7	3.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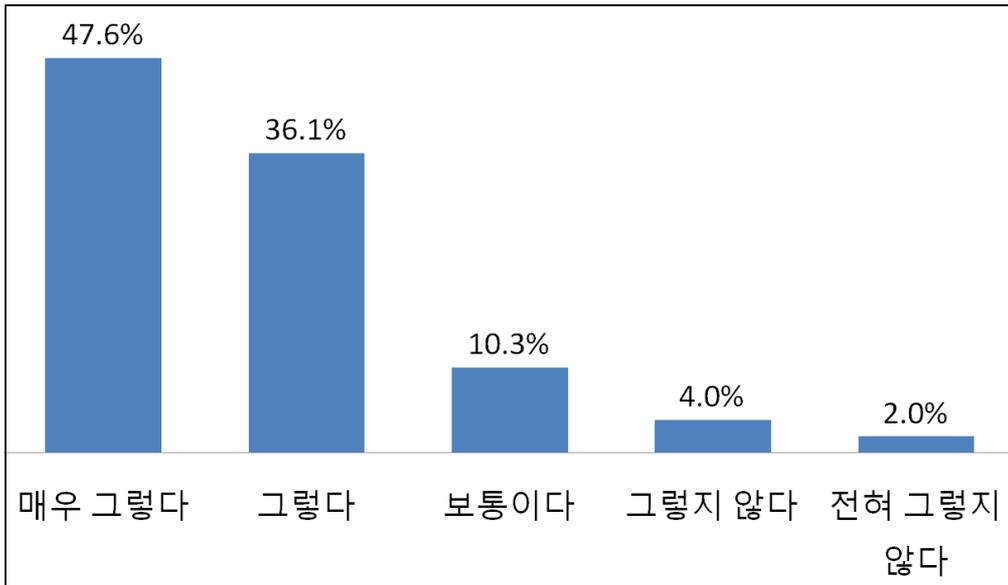


〈그림 15〉 관상학에서 인상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 그래프

조사대상자들은 관상학적 관점에서 인상이 타인에게 전달하는 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위로 ‘눈썹’ 53.0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눈’ 32.8%, ‘얼굴형’ 9.3%, ‘코’ 3.0%, ‘이마’ 2.0%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전달에는 눈썹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8〉 관상학에서 눈썹형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평가

질문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4	109	31	12	6	302
백분율(%)	47.6	36.1	10.3	4.0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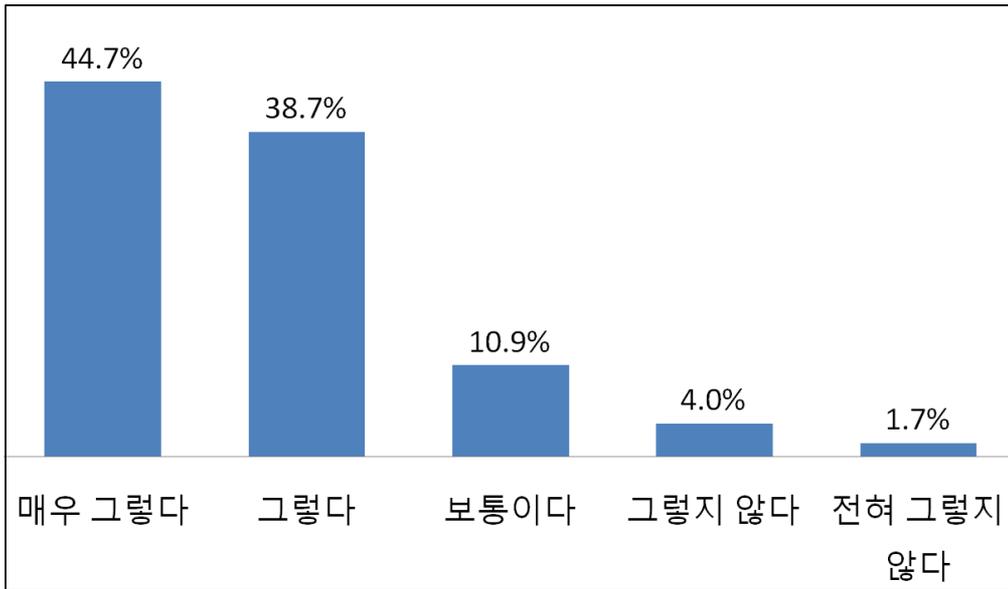
〈그림 16〉 관상학에서 눈썹형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평가 그래프

‘매우 그렇다’ 47.6%로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의 반대로는 ‘그렇지 않다’ 4.0%, ‘전혀 그렇지 않다’ 2.0%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자들은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이크업을 행하면서 관상학적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같다.

〈표 39〉 관상학에서 긍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질문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눈썹형태는 메이크업 시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35	117	33	12	5	302
백분율(%)	44.7	38.7	10.9	4.0	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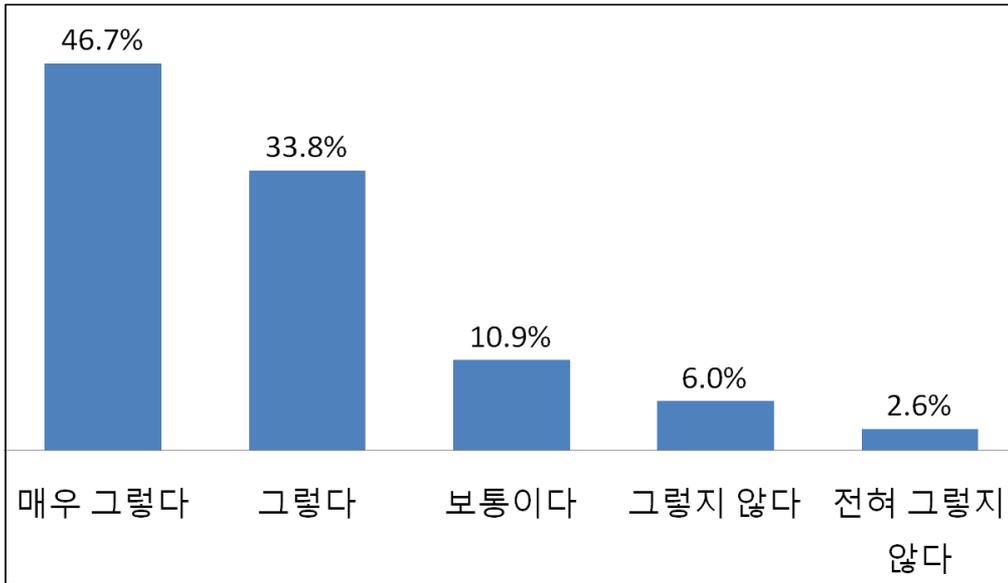


〈그림 17〉 관상학에서 긍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그래프

관상학적으로 긍정적 인상의 눈썹형태를 메이크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생각여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44.7%, ‘그렇다’ 38.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체의 83.4%는 눈썹의 형태에 따른 관상학적 긍정적 의미가 담긴 눈썹은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 높았으며, 관상학적 의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0〉 관상학에서 부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질문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눈썹형태는 메이크업 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1	102	33	18	8	302
백분율(%)	46.7	33.8	10.9	6.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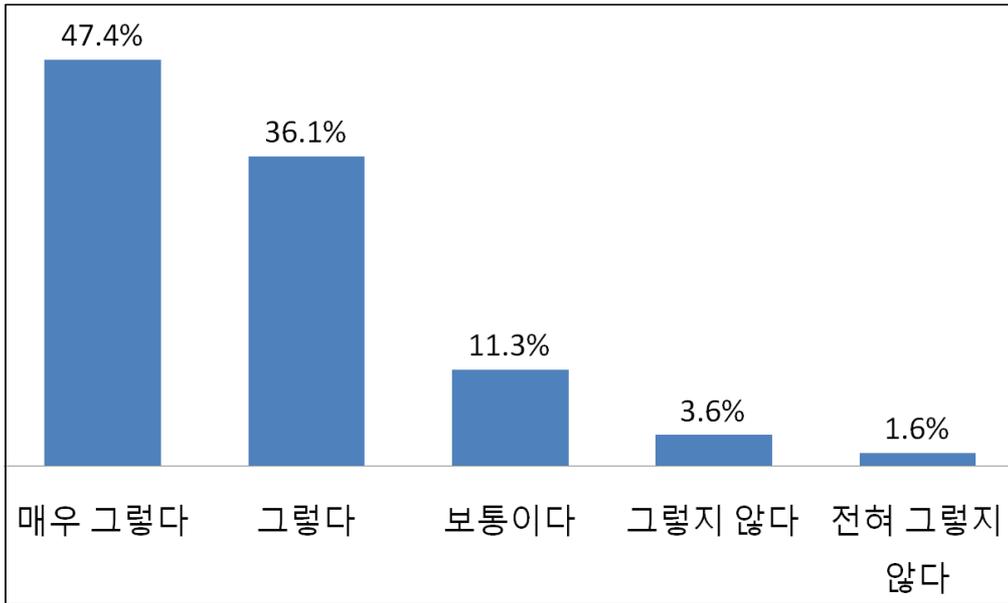
〈그림 18〉 관상학에서 부정의미가 담긴 눈썹형태 사용에 대한 평가 그래프

관상학적으로 부정적 인상의 눈썹형태를 메이크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생각 여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46.7%, ‘그렇다’ 33.8%로 부정적 의미가 담긴 눈썹의 형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얼굴에 메이크업 시 관상학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중요성 또한 알 수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질문	귀하는 눈썹 메이크업 시 표현되는 인상이 관상학에서 나타난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3	109	34	11	5	302
백분율(%)	47.4	36.1	11.3	3.6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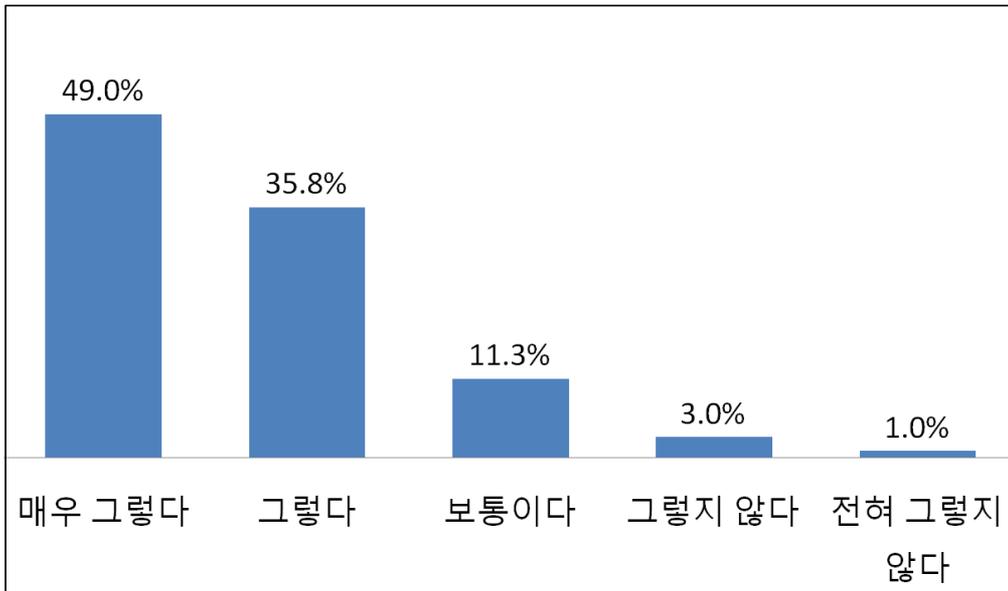
〈그림 19〉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그래프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인상과 상관관계 여부에 관한 질문의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 47.4%, ‘그렇다’ 36.1%, ‘보통이다’ 11.3%, ‘보통이다’ 11.3%, ‘그렇지 않다’ 3.6%, ‘전혀 그렇지 않다’ 1.7%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83.5%가 눈썹의 형태가 관상학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

질문	귀하는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8	108	34	9	3	302
백분율(%)	49.0	35.8	11.3	3.0	1.0	100.0



〈그림 20〉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평가 그래프

조사대상자들은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그렇다’ 49.0% (전체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보통이다’ 11.3%, ‘그렇지 않다’ 3.0%, ‘전혀 그렇지 않다’ 1.0%로 나타나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관상학적 관점에서의 인식 수준 평균 비교

항목	A:눈썹중요도 1순위 응답자(N=160)		B:다른부위 1순위 응답자(N=142)		t-tes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눈썹형태의 고려도	4.70	.486	3.71	1.029	10.464***
긍정적 눈썹형태로 메이크업 사용 시도	4.64	.518	3.72	.999	9.918***
부정적 눈썹형태로 메이크업 사용 자제	4.71	.519	3.54	1.076	11.869***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과 관상학 인상의 상관성	4.71	.484	3.71	.986	10.913***
눈썹형태 인상연구의 실무도움 정도	4.69	.491	3.84	.950	9.578***

\*p<.05, \*\*p<.01, \*\*\*p<.001

관상학적 관점에서 관련 항목들의 인식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상전달을 하는데 눈썹을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응답한 집단 A와 다른 부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집단 B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t-test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들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눈썹형태의 고려도는 A집단이 4.70점으로 B집단의 3.7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 $p<.001$ )이었다. 또한 긍정적 눈썹형태로의 메이크업 사용시도는 A집단 응답자 (4.64점)가 B집단 응답자(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눈썹형태로의 메이크업 사용

자제도 또한 A집단(4.71점)이 B집단(3.54점)보다 높았다. 이는 A집단이 적극적으로 눈썹과 관련된 메이크업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눈썹 메이크업의 인상과 관상학에서의 인상이 서로 상관성이 있느냐의 정도는 A집단(4.71점)이 B집단(3.7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눈썹형태의 인상연구가 실무에 주는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도는 A집단이 4.69점으로 B집단의 3.8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관상학적 관점에서 눈썹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A집단의 눈썹관련 항목들의 인식도가 다른 부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B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표 44〉 조사대상자의 얼굴 형태별 눈썹 선호도

얼굴형	눈썹형태	빈도(명)	백분율(%)	합계(%)
계란형	표준형	150	49.7	100.0
	일자형	87	28.8	
	아치형	64	21.2	
	각진형	1	0.3	
	상승형	0	0.0	
	처진형	0	0.0	
긴형	표준형	116	38.4	100.0
	일자형	147	48.6	
	아치형	37	12.3	
	각진형	0	0.0	
	상승형	0	0.0	
	처진형	2	0.7	
둥근형	표준형	174	57.6	100.0
	일자형	90	29.8	
	아치형	22	7.3	
	각진형	3	1.0	
	상승형	7	2.3	
	처진형	6	2.0	
각진형	표준형	154	51.0	100.0
	일자형	69	22.8	
	아치형	66	21.9	
	각진형	3	1.0	
	상승형	8	2.6	
	처진형	2	0.7	
역삼각형	표준형	148	49.0	100.0
	일자형	94	31.1	
	아치형	46	15.2	
	각진형	3	1.0	
	상승형	2	0.7	
	처진형	9	3.0	
마름모형	표준형	150	49.7	100.0
	일자형	94	31.1	
	아치형	48	15.9	
	각진형	2	0.7	
	상승형	1	0.3	
	처진형	7	2.3	

〈표 44〉는 6가지의 얼굴형에 적용된 각 눈썹의 형태를 보고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눈썹의 형태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계란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49.7%(전체 1위), ‘일자형’ 28.8%(전체 2위), ‘아치형’ 21.2%(전체 3위), ‘각진형’ 0.3% (전체 4위), ‘상승형’과 ‘처진형’은 0.0%의 순으로 나타나 계란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눈썹이 가장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눈썹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긴 얼굴형에서는 ‘일자형’ 48.7%(전체 1위), ‘표준형’ 38.4%(전체 2위), ‘아치형’ 12.3%(전체 3위), ‘처진형’ 0.7%(전체 4위), ‘각진형’과 ‘상승형’은 0.0% 의 순으로 나타나 긴 얼굴형에서는 일자형 눈썹이 가장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눈썹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둥근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57.6%(전체 1위), ‘일자형’ 29.8%(전체 2위), ‘아치형’ 7.3%(전체 3위), ‘상승형’ 2.3%(전체 4위), ‘처진형’ 2.0%(전체 5위), ‘각진형’ 1.0%(전체 6위)로 계란 얼굴형, 긴 얼굴형과 달리 조사대상자들은 모든 형태의 눈썹에서 선택하였으나 표준형 눈썹의 형태에어 50% 이상의 응답으로 둥근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눈썹이 가장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눈썹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각진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51.0%(전체 1위), ‘일자형’ 22.8%(전체 2위), ‘아치형’ 21.9% (전체 3위), ‘상승형’ 2.6% (전체 4위), ‘각진형’ 1.0%(전체 5 위), ‘처진형’ 0.7%(전체 6위)로 둥근 얼굴형의 응답 비율과 흡사한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각진 얼굴형에서도 표준형 눈썹이 50% 이상의 가장 높은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역삼각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49.0%(전체 1위), ‘일자형’ 31.1%(전체 2 위), ‘아치형’ 15.2%(전체 3위), ‘처진형’ 3.0%(전체 4위), ‘각진형’ 1.0%(전체 5위), ‘상승형’ 0.7%(전체 6위)의 순이었고, 역삼각 얼굴형에서도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형태로 표준형의 눈썹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름모 얼굴형에서는 ‘표준형’ 49.7%(전체 1위), ‘일자형’ 31.1%(전체 2 위), ‘아치형’ 15.9%(전체 3위), ‘처진형’ 2.3%(전체 4위), ‘각진형’ 0.7%(전체 5위), ‘상승형’ 0.3%(전체 6위)의 순으로 타 얼굴형과 같이 호감적인 인상을 주는 눈썹의 형태로 표준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통계 분석을 통해 6가지 얼굴형에서 공통되는 호감적인 눈썹의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각 모든 얼굴형에서 ‘각진형’ 눈썹, ‘상승형’ 눈썹, ‘처진형’ 눈썹의 형태가 응답비율이 낮은 것을 보아 이러한 형태의 눈썹은 호감적인 인상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각진 얼굴형에서 ‘일자형’을 가장 많은 응답한 것을 제외한 모든 얼굴형에서 가장 많은 응답으로 ‘표준형’ 눈썹을 호감적인 인상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5〉 눈썹형태별 긍정적 인상의 형용사 평가

아름다운		자애로운		상냥한		단정한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표준형	34.3 %	표준형	28.2 %	표준형	27.9 %	표준형	38.9 %
일자형	39.1 %	일자형	59.6 %	일자형	23.8 %	일자형	49.0 %
아치형	36.7 %	아치형	5.9 %	아치형	45.3 %	아치형	12.2 %
각진형	0.0 %	각진형	0.0 %	각진형	0.0 %	각진형	0.0 %
상승형	0.0 %	상승형	0.0 %	상승형	0.0 %	상승형	0.0 %
처진형	0.0 %	처진형	6.2 %	처진형	2.9 %	처진형	0.0 %
합계	100 %	합계	100 %	합계	100 %	합계	100 %
총명한		부귀한		화목한		인자한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표준형	43.6 %	표준형	32.8 %	표준형	36.1 %	표준형	30.4 %
일자형	27.5 %	일자형	19.2 %	일자형	19.0 %	일자형	49.6 %
아치형	27.2 %	아치형	41.9 %	아치형	44.9 %	아치형	9.9 %
각진형	0.9 %	각진형	1.5 %	각진형	0.0 %	각진형	0.0 %
상승형	0.9 %	상승형	7.7 %	상승형	0.0 %	상승형	0.0 %
처진형	0.0 %	처진형	0.0 %	처진형	0.0 %	처진형	10.1 %
합계	100 %	합계	100 %	합계	100 %	합계	100 %
강직한		맑은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표준형	5.6 %	표준형	46.4 %				
일자형	13.5 %	일자형	34.4 %				
아치형	14.1 %	아치형	19.3 %				
각진형	39.9 %	각진형	0.0 %				
상승형	27.0 %	상승형	0.0 %				
처진형	0.0 %	처진형	0.0 %				
합계	100 %	합계	100 %				

〈표 46〉 눈썹형태별 부정적 인상의 형용사 평가

외로운		궁핍한		교활한		흉포한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표준형	0.0 %						
일자형	1.3 %	일자형	1.8 %	일자형	0.0 %	일자형	0.0 %
아치형	0.0 %	아치형	0.0 %	아치형	1.2 %	아치형	0.0 %
각진형	1.6 %	각진형	9.7 %	각진형	61.1 %	각진형	33.8 %
상승형	4.4 %	상승형	2.3 %	상승형	35.5 %	상승형	59.1 %
처진형	92.8 %	처진형	87.4 %	처진형	2.2 %	처진형	7.2 %
<b>합계</b>	<b>100 %</b>						
주관적인		날카로운		고집적인		거짓적인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눈썹형	백분율
표준형	0.0 %						
일자형	6.8 %	일자형	0.0 %	일자형	11.3 %	일자형	0.6 %
아치형	3.1 %	아치형	1.0 %	아치형	3.9 %	아치형	1.6 %
각진형	45.8 %	각진형	19.9 %	각진형	31.0 %	각진형	53.6 %
상승형	33.4 %	상승형	70.2 %	상승형	44.8 %	상승형	37.3 %
처진형	10.8 %	처진형	9.0 %	처진형	9.0 %	처진형	6.8 %
<b>합계</b>	<b>100 %</b>						

위 〈표 45〉와 〈표 46〉은 메이크업을 관련한 전문인을 대상으로 눈썹의 형태별 인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의 형용사를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긍정적인 인상의 형용사 부분에서는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의 눈썹 형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은 긍정적 인상의 형용사 평가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직한’ 인상에서는 도드라지는 비율을 보이고, ‘처진형’ 눈썹은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나 ‘인자한’, ‘자애로운’ 인상 형용사에서 타 인상 형용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긍정적 인상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 눈썹의 형태와 반대로 부정적 인상 형용사 분류 평가에서는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의 형태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외로운’, ‘궁핍한’ 인상 형용사에서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아치형’ 눈썹의 형태에서 ‘외로운’ 92.8%, ‘궁핍한’ 87.4%로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4) 눈썹형태별 관상학적 상관관계

〈표 47〉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대표 인상 비교

눈썹형	메이크업적 인상			관상학적 인상		
	대표 인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대표 인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
표준형	여성적인	깨끗한	없음	총명한	아름다운	없음
일자형	젊은	단정한	이기적인	부귀한	단정한	주관적인
아치형	부드러운	친절한	우유부단한	화목한	부귀한	무정한
각진형	세련된	지적인	날카로운	교활한	부귀한	거짓적인
상승형	개성적인	지적인	사나운	총명한	부귀한	날카로운
처진형	부드러운	온화한	슬픈	외로운	자애로운	궁핍한

메이크업과 관상학적에서의 인상에 관한 형용사의 분류에 있어 의미적으로 서로 차이점이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그리고 있는 눈썹의 기본적이고 대중화된 단순한 눈썹의 기본적인 형태 5개에서 6개사이로 눈썹의 모양을 나타내고, 눈썹의 형태별 인상학적 이미지의 형용사 대부분은 ‘부드러워 보인다.’, ‘여성적으로 보인다.’ 혹은 ‘슬퍼 보인다.’ 등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얼굴의 외관을 중점으로 하여 표현하였거나 ‘상냥해 보인다.’, ‘이기적으로 보인다.’와 같이 얼굴의 이미지로 하여금 성격이 어떠한지 보인다고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

관상학적 측면에서는 메이크업과 같이 기본적인 눈썹의 형태를 따로 분류하여 연구하거나 서술하는 부분이 극히 드물다. 기본적인 눈썹의 형태로 메이크업에서의 표준형 눈썹의 경우 ‘가장 좋은 형태의 눈썹으로서 털이 고르고 모양이 청수하고 균형이 알맞다.’로 표현이 되거나 일자형 눈썹과 같은 형태

의 눈썹에서는 직선적인 눈썹, 처진형의 눈썹형태에서는 팔(八)자 눈썹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과 같이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상을 말하기보다 특정한 형태의 눈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성격이 온화하나 우유부단한 단점이 있다.’, ‘눈썹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포악하나 정이 많은 성격이다.’와 같이 내면의 성격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복이 있다.’, ‘운이 있다.’와 같은 육안으로 결코 느낄 수 없는 측면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상학적 인상의 형용사는 눈썹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상 형용사를 발취하였다. 이에 따른 인상의 눈썹 형태별로 살펴보면 메이크업에서와 관상학에서의 서로 공통적인 인상학적 요소가 있었으며, 선행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한 눈썹형태별 대표 인상, 긍정적 인상, 부정적 인상은 다음 <표 47>과 같다. 표준형 눈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이 도드라지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부정정적인 인상은 메이크업적, 관상학적 모두 나타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일자형 눈썹형태에서는 메이크업에서의 긍정적 인상은 ‘젊은’ 관상학에서의 긍정적 인상은 ‘맑은’ 으로 표현되었으며, 메이크업에서의 부정적 인상은 ‘이기적인’, 관상학에서의 부정적 인상은 ‘주관적인’으로 개인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상의 형용사가 나타났다. 이렇듯 메이크업과 관상학에서는 서로 다른 초점으로 보아 눈썹형태별 인상을 설명하고 있었으나 서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48〉 관상학과 조사대상자의 인상 비교

눈썹형	이미지 분류	관상학	조사대상자
표준형	긍정적 인상	총명한, 부귀한, 아름다운, 맑은, 단정한	맑은, 총명한, 단정한, 화목한, 아름다운, 부귀한, 인자한, 자애로운, 상냥한
	부정적 인상	없음	없음
일자형	긍정적 인상	부귀한, 단정한, 맑은, 인자한, 강직한	자애로운, 인자한, 단정한, 맑은, 아름다운, 총명한, 상냥한, 부귀한, 화목한
	부정적 인상	주관적인, 고집적인	없음
아치형	긍정적 인상	화목한, 부귀한, 맑은, 상냥한, 총명한	상냥한, 화목한, 부귀한, 아름다운, 총명한
	부정적 인상	무정한	없음
각진형	긍정적 인상	부귀한	강직한
	부정적 인상	교활한, 흉포한, 거짓적인, 궁핍한, 사나운, 음험한, 독한	교활한, 거짓적인, 주관적인, 흉포한, 고집적인, 날카로운
상승형	긍정적 인상	총명한, 부귀한, 강직한, 온화한, 용맹한	강직한
	부정적 인상	날카로운, 흉포한, 외로운	날카로운, 흉포한, 고집적인, 거짓적인, 교활한, 주관적인
처진형	긍정적 인상	자애로운	없음
	부정적 인상	외로운, 궁핍한	외로운, 궁핍한

각 눈썹형태에 따른 인상의 형용사 평가에서 전체 평균값을 계산하여 평균값에 따른 비율로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인상의 관상학과 조사대상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표준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 조사에서는 ‘맑은’ 46.1%, ‘총명한’ 43.5%, ‘단정한’ 38.8%, ‘화목한’ 36.1%, ‘아름다운’ 34.1%, ‘부귀한’ 32.8%, ‘인자한’ 30.4%, ‘자애로운’ 28.2%, ‘상냥한’ 27.9%의 비율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상 형용사에서는 평균값 이상의 비율이 조사되지 않았다.

일자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 조사에서는 ‘자애로운’ 59.6%, ‘인자한’ 49.4%, ‘단정한’ 48.8%, ‘맑은’ 34.1%, ‘아름다운’ 29.0%, ‘총명한’ 27.5%, ‘상냥한’ 23.8%, ‘부귀한’ 19.2%, ‘화목한’ 19.0%로 나타났으며, 표준형 눈썹과 같이 부정적인 인상 형용사에서는 평균값 이상의 비율이 조사되지 않았다.

아치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 조사에서는 ‘상냥한’ 45.4%, ‘화목한’ 44.9%, ‘부귀한’ 41.9%, ‘아름다운’ 36.6%, ‘총명한’ 27.2%였으며, 부정적 인상 형용사에는 평균값 이상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각진형 눈썹에서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 조사에서는 ‘강직한’ 39.9%이며, 부정적인 인상 형용사에서 ‘교활한’ 61.1%, ‘거짓적인’ 53.6%, ‘주관적인’ 45.8%, ‘흉포한’ 33.5%, ‘고집적인’ 31.0%, ‘날카로운’ 19.8%로 조사되었다.

상승형 눈썹에서의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 조사에서는 ‘강직한’ 27.0%, 부정적인 인상 형용사로는 ‘날카로운’ 70.0%, ‘흉포한’ 58.7%, ‘고집적인’ 44.8%, ‘거짓적인’ 37.3%, ‘교활한’ 35.5%, ‘주관적인’ 33.4%로 평균값 이상의 비율이 조사되었다.

처진형 눈썹의 긍정적인 인상 형용사에서는 평균값 이상의 비율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인상의 형용사로 ‘외로운’ 92.3%, ‘궁핍한’ 87.1%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메이크업 관련 실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눈썹 메이크업 형태별에 나타난 인상이 관상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응답평가에 대한 항목을 집계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외모로써 이 중 눈썹형태가 인상변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눈썹형태별에 나타난 인상이 관상학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과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상 형성에 있어서 눈썹 메이크업만으로도 충분히 호감적인 인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첫 째,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눈썹형태별 긍정적 인상과 부정적 인상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표준형 눈썹을 제외한 모든 눈썹의 형태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

표준형 눈썹은 깨끗해 보이며, 일자형 눈썹은 단정하지만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인상이다. 아치형 눈썹의 인상은 상냥하고,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의 인상은 날카롭거나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으며, 처진형 눈썹은 우울하거나 외로운 인상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 째, 조사대상자의 눈썹형태별 인상에 대한 인식으로 표준형 눈썹은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인상과 같이 부정적 인상 없이 맑고 총명해 보이는 긍정적 인상을 나타내며, 일자형 눈썹은 자애롭고 인자함과 동시에 단정하다. 아치형 눈썹은 상냥하고 화목해 보이는 인상, 각진형과 상승형 눈썹에서는 교활하고 날카롭다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한 처진형 눈썹에서는 외롭고 궁핍하다고 느낀다.

셋 째, 조사대상자의 응답과 관상학적 상관관계에 있어서 눈썹형태별 긍정적 및 부정적 인상 모두 상반되는 관계없이 일치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조사대상자의 응답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중 한 방향에 극단적으로 치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 째, 조사대상자와 관상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로는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으로 조사되었으며, 비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눈썹의 형태는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눈썹형태에 따라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은 관상학적 인상과 일치성을 나타내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정적인 인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각진형, 상승형, 처진형과 같은 눈썹의 형태는 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나타내는 표준형, 일자형, 아치형의 눈썹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호감적인 인상 표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조사대상자로 남성보다 여성에 치우쳐 조사되었다는 점과 얼굴의 부위 중 눈썹의 요소에만 국한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관상학과 메이크업의 확대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김광일. (2013). 「관상학 길잡이」. 서울: 책만드는 집.
- 김은희, 신세영, 임소연. (2012). 「베이직 메이크업」. 서울: 교문사.
- 김현남. (2009). 「관상: 복을 부르는 관상, 화를 부르는 관상」. 서울: 나들목.
- 김활란, 김은희, 김도이, 김연아, 최정순, 황선희. (2015). 「메이크업개론」.  
경기: 한국의맥.
- 박중환. (2016). 「관상학 사전」. 서울: 대유학당.
- 신기원. (2013). 「신기원의 꿀 관상학」. 경기: 위즈덤하우스.
- 신성은. (1998). 「거울로 보는 관상」. 서울: 자유문고.
- 안준범. (2017). 「관상궁합」. 서울: 유아이박스.
- 양진희, 박춘심, 이종란, 이미희, 김광숙, 주은경, 우미옥. (2013). 「메이크업 디자인」. 경기: 광문각.
- 엄원섭. (2007). 「관상보고 사람 아는 법」. 서울: 백만문화사.
- 오세희. (2005). 「오세희의 스타일 메이크업」. 경기: 성안당.
- 이강미, 김유정, 김찬수, 현경화, 서은혜. (2014). 「메이크업 베이직」. 서울: 구민사.
- 이우영. (2010). 「정통관상 수상법 관상과 손금」. 서울: 아이템박스.
- 임미애, 설현진, 최미라. (2009). 「화장문화사」. 서울: 신정.
- 전인호. (2009). 「내 인생의 돈을 부르는 부자되는 관상비결」. 서울: 케이 앤피박스.
- 허정록, 김선형, 최은미, 정은영, 김의형. (2017). 「TOTAL MAKE UP」. 서울: 형설출판사.
- 홍성남. (2014). 「인생과 관상」. 서울: 책과나무.
- Robyn Cosio, Cynthia Robins. (2005). 「눈썹의 역사」. 서울: 동서교류

## 2. 학위논문

- 장은주. (2003). 「눈썹 화장이 얼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애. (2000). 「눈 메이크업이 안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랑. (2016). 「여성의 얼굴형에 따른 직업유형별 눈썹 메이크업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원. (2015). 「항공사 객실승무원 지원자의 외적이미지 상승을 위한 메이크업 제안」.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열. (2013). 「관상학 이론에 근거한 메이크업 유형 연구 : 배역에 따른 무대분장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2015). 「관상학을 기초로 한 관상메이크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2015). 「눈썹 메이크업 평균변화율에 따른 얼굴 이미지 감성평가」.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리. (2009). 「취업지원자의 외적 이미지가 면접관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고은. (2013).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03). 「아이 메이크업에 의한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2008). 「얼굴형에 따른 이미지 메이크업 효과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선. (2010). 「눈썹형태가 얼굴에 미치는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진. (2006). 「인상교정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 얼굴형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복. (2000). 「한국 기업의 면접시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광하. (2007). 「메이크업이 이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 (2012). 「대중스타의 눈썹 메이크업 유행이 20대 여대생의 눈썹 메이크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영. (2013). 「효과적인 눈썹보정을 위한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기법 연구」.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연빈. (2014). 「얼굴형의 특성을 보완한 헤어스타일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보현. (2009).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 얼굴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임. (2013). 「첫인상 호감도 상승을 위한 얼굴 수정메이크업 디자인 제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메이크업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관상학에서 표현된 눈썹형태의 일반적 인식을 파악하고, 눈썹형태에서 느껴지는 인상에 관하여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국내 관상학 문헌들과 관상과 관련한 선행논문을 근거하여 인상의 대표적인 형용사를 발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일 없이 오직 학문적인 연구목적에 위해서만 사용하며, 설문 문항들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는 문항들로서 설문에 응해주시는 귀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솔직한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신 내용들은 메이크업 및 미용학문에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05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지도교수 : 황주연, 연구자 : 조채연

연구자 H.P : 010.2288.0222

I. 다음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재학중) ③ 4년제 대졸(재학중) ④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5.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대 ③ 300만원 대 ④ 400만원 대 ⑤ 500만원 이상

Ⅱ.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는 현재 메이크업 실무를 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귀하의 메이크업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3. 귀하의 근무지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메이크업 샵 ② 출장메이크업 ③ 방송 ④ 교육 ⑤ 기타

4. 귀하가 메이크업을 시술해주는 횟수는 주 몇 회 정도 되십니까?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회 이상

Ⅲ. 다음은 메이크업에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는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외모 ② 성격 ③ 학벌 ④ 신분 ⑤ 기타
  
2. 귀하는 메이크업 시 인상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윤곽수정 ② 눈썹 ③ 눈 ④ 볼터치 ⑤ 입술
  
3. 귀하는 눈썹의 형태에 따라 인상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귀하는 눈썹 메이크업이 인상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③ 보통이다  
④ 별 영향이 없다 ⑤ 전혀 영향이 없다
  
5. 귀하는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메이크업 시 호감적인 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눈썹의 형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7. 귀하는 메이크업 시 눈썹의 형태 선정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얼굴형 ② 본래 눈썹의 형태 ③ 전체적인 이미지 ④ 고객취향  
⑤ 본인취향 ⑥ 고려하지 않음

IV. 다음은 관상학에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귀하는 관상학에서 인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얼굴형 ② 이마 ③ 눈썹 ④ 눈 ⑤ 코 ⑥ 입

2.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눈썹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눈썹형태는 메이크업에 시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귀하는 관상학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눈썹형태는 메이크업 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귀하는 눈썹 메이크업 시 표현되는 인상이 관상학에서 나타난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눈썹형태의 인상 연구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V. 다음은 메이크업과 관상학의 연계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가 첨부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주세요.

1. 다음 표준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2. 다음 긴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3. 다음 둥근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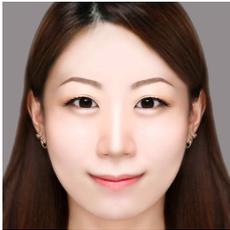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4. 다음 각진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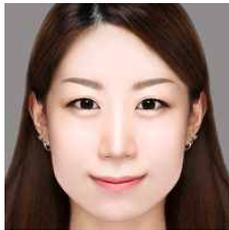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5. 다음 역삼각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6. 다음 마름모 얼굴형에 호감을 주는 눈썹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표준형



② 일자형



③ 아치형



④ 각진형



⑤ 상승형



⑥ 처진형

7. 관상과 관련한 문헌 및 선행논문을 근거하여 인상의 대표적인 형용사입니다. 각 그림을 보고 눈썹의 형태에 따라 느껴지는 인상을 체크해주세요.

(중복선택 가능)

구 분						
아름다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애로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냥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정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충명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귀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목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자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강직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맑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로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궁핍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활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흥포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관적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날카로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집적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거짓적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설문지 주소 : <https://goo.gl/forms/b4Q76Uzm9Ndpynzk1>

## ABSTRACT

### The Correlation of Physiognomy and the Diverse Shapes of the Eyebrow With Makeup

Cho, Chae-Yeo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Makeup has develop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expressed externally and a way of enhancing one's psychological self-esteem at the same time. Amongst the vast elements of makeup, eyebrows are very important as they provide a standard point for one's visual impression by making a change in one's natural appearance so that one can create various looks and visual impressions of expressions. The shape of one's eyebrows can determine a person's character and visual impression even by itself; it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which contributes to making a clear and vivid impression on others.

This study defined the range of 'visual impression' as the shape of eyebrows among the facial area and aimed to figure out how the visual impression of different eyebrow shapes show physiognomic correl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identified visual impressions by each

eyebrow shape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academic papers on makeup and physiognomy in Korea. In each document, 18 adjective words with high frequency related to positive and negative visual impressions were extracted. Subsequently a survey was conducted on experts who are engaged in jobs related with makeup whose ages range from 10s to 60s in order to find out how their visual impressions are towards each type of eyebrow shape.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responses and the physiognomic impressions were then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etermines what kind of eyebrow shape contributes to make a favorable and positive impression of one's appear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eyebrows in makeup and physiognomy only elicit positive impressions, whereas all other forms of eyebrow shapes evoke positive and negative impressions. It was found that standard eyebrows look clean, flat-shaped eyebrows are neat but look quite stubborn, arch eyebrows look gentle, angled eyebrows or eyebrows that slope diagonally look sharp or fierce and slanted eyebrows look depressed or lonely.

Second, the survey participants' responses upon visual impressions for each eyebrow shape showed standard eyebrows, such as in makeup and physiognomic impression, seem to have a positive, clear and bright impression. In addition, they responded that flat-shaped eyebrows have kind, tender and gentle impression. Arched eyebrows give a pleasant and peaceful impression, whereas the results show angled and diagonal eyebrows appear to be sly and fierce. Furthermore, slanted eyebrows appear to be lonely and destitute.

Third,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ressions of each eyebrow shape were found to have a correlation in concordance among the survey participants' responses and physiognomy.

Fourth, the types of eyebrow shapes which can express favorable

impressions were analyzed as standard, flat and arch types, whereas those which can give of non-favorable impressions were analyzed as angled, diagonal and slanted shapes.

Thus, the visual impressions of eyebrow shapes have a correlation correspondent with physiognomic impressions. In addi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one should avoid angled, diagonal and slanted eyebrow shapes which showed prominent negative impressions and rather keep the eyebrow shapes to standard, flat and arch forms which express positive impressions in order to create favorable impressions towards others in the most efficient manner.